

소학생

9월치

특집 · 가을의 과학 *



선 아동 문화 협회 발행 *

197

50호



소학생을 위한 음악 연주회

이 문에게 받은 서양 음악을 들며 드리고자 우리 안서는 지난 8월 8일 "제 소학생을 위한 음악 연주회"를 서울 국제 극장에서 다. 그날 서울 안 소학생은 이른 아침부터 불필름을 들어 장내는 잠시 단원이 되었다. 음악이 한 가지 할날적마다 여기서는 우피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진 설명

위쪽 연주하는 고백 모향악단이며 문 원원 위는 백화 여자 중학 합창단. 그 다음은 서울 사범 대학 중학 국민 학교 합창단. 그 다음은 백화 국민 학교 합창단. 그 다음은 원제적 피아니스트 원제 만 군. 오른쪽은 아름답게 울며 나오는 음악 소리에 도취된 손님들.



—차 —

특집 · 가을의 피와

- ★가을의 피와 가을—김 평평 (1)
- ★가을의 숲—김 평평 (7)
- ★가을의 물결—김 평평 (9)
- ★가을의 귀족—김 평평 (11)
- ★가을의 풍경—김 평평 (13)
- ★가을의 기억—김 평평 (15)

- 가을의 피와 가을—김 평평 (1)
- 가을의 숲—김 평평 (7)
- 가을의 물결—김 평평 (9)
- 가을의 귀족—김 평평 (11)
- 가을의 풍경—김 평평 (13)
- 가을의 기억—김 평평 (15)

- ★가을의 피와 가을—김 평평 (1)
- ★가을의 숲—김 평평 (7)
- ★가을의 물결—김 평평 (9)
- ★가을의 귀족—김 평평 (11)
- ★가을의 풍경—김 평평 (13)
- ★가을의 기억—김 평평 (15)

- ★가을의 피와 가을—김 평평 (1)
- ★가을의 숲—김 평평 (7)
- ★가을의 물결—김 평평 (9)
- ★가을의 귀족—김 평평 (11)
- ★가을의 풍경—김 평평 (13)
- ★가을의 기억—김 평평 (15)

- ★가을의 피와 가을—김 평평 (1)
- ★가을의 숲—김 평평 (7)
- ★가을의 물결—김 평평 (9)
- ★가을의 귀족—김 평평 (11)
- ★가을의 풍경—김 평평 (13)
- ★가을의 기억—김 평평 (15)

—그림 —

김 평평 · 장 현승
김 기성 · 김 수남

소학생

★ 9 월 차 ★



과학의 가을

열매 맺는 계절

서울 중앙 중학교 교장 심형필

과학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읽는데 대한 몇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립니다. 요사이 어떤 이들은 "판둥이의 모험"이나 "아미바바"의 이야기 같은 것은 꼭 재미있게 읽으면서도 과학 이야기 같은 것은 그렇게 재미도 없고 또 어려워서 당초부터 읽지 못할 생각도 아니라는 사람이 있는 듯 합니다. 우리가 맛 있는 비빔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비빔밥의 맛은 향기롭고 고춧가루와 그 밖의 여러 가지 양념에서 생긴다고 해서, 그따위 약념만을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로 신동한 맛은 없다 하더라도 적당한 분량의 밥을 먹어야 몸을 지탱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름철에 가끔 밥맛이 없어져서 아무 밥이 먹기 싫은 때가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짐작할 일입니다. 이런 때에 맛이 없다고 밥을 안 먹고 과실이나 아

이스크림 같은 것만 먹는다면 당장 배가 아파 날 것입니다. 나는 이런 때에는 밥을 억지로 먹는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은 이미 합니다. 첫째 냄새를 안 맡으려고 숨을 얹어도 안 씹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 넣고는 그놈을 일삼아 자꾸 씹습니다. 생각에 가미 한 5분 동안만 씹으면 밥이 불과 같이 되면서 기가 막히게 고소한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씹어서 먹은 밥을 소화도 잘 돼서 밥 먹는 목적을 충분히 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글을 읽는데도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이치를 따지는 까다로운 학문이므로 이치를 따지라고 단박히 들이 붙는 사람에게는 여간 재미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아무 생각도 목적도 없이 그저 읽고 재미있는 일만을 골라 읽는 사람에게는 말뭉치 밥알 같이 딱딱해서 아무런 맛을 모를 것입니다.

오늘 ^{남 수미의 처지} ^{또 모아서 과학은} ^{어려워도 기어코 이해야 하} ^{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잡지에도 과학에 대한 글을 많이 실는 모양인데, 여러 분들은 그런 뜻은 조금도 생각지 않고 과학은 재미 없다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면 여간 섭섭한 일이 아니라고 해서, 이야기는 다기로 전해 이런 걱정이 먼저 앞서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과학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이야기 하나만 잘 읽고도 새삼스럽게 재미있다고 생각되면 만큼 보람 있게 읽는 버릇을 길러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 면 이제부터 과학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매년 수분(秋分)을 가을에도 한 달 동안은 가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금년의 수분은 9월 23일입니다. 그래서 8월 8일(立秋)에서 11월 8일(立冬)까지의 석 달 동안이 금년의 가을입니다. 봄의 한 목판인 춘분(春分) 날이 맑고 낮의 길이가 꼭 같았던 것과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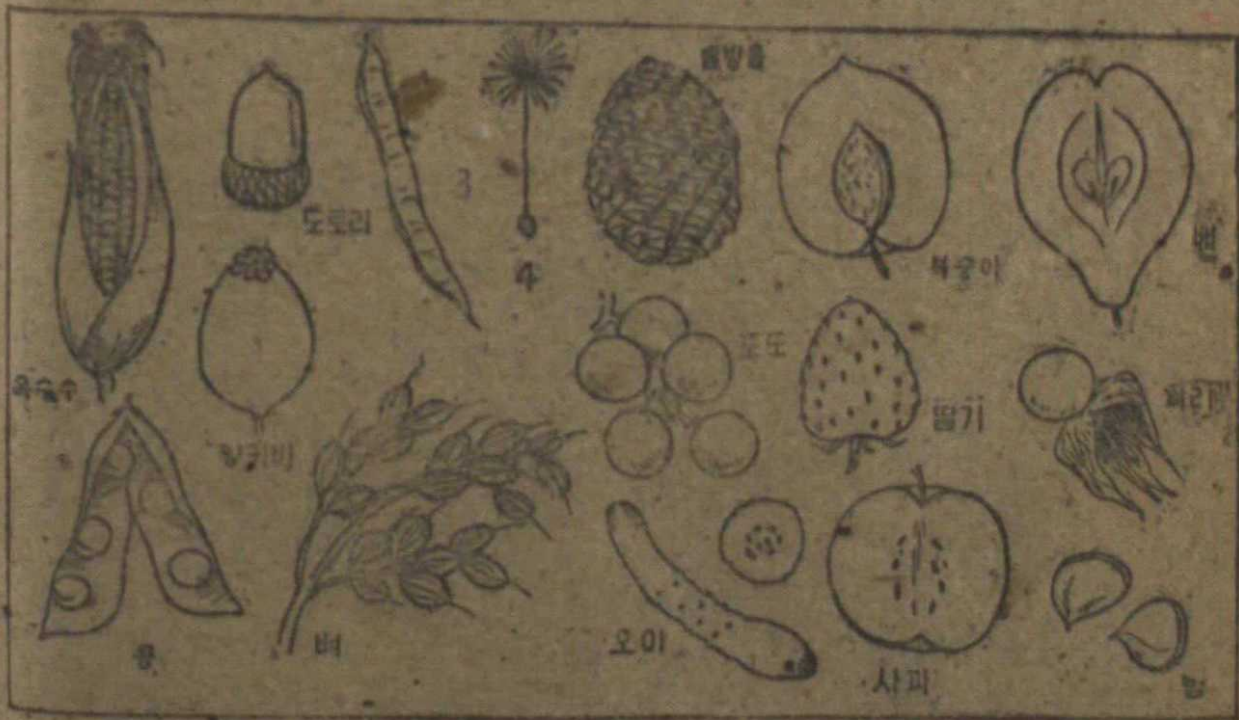
수분(水分) 날도 맑고 낮의 길이가 짧습니다. 수분이 지나면 맑은 차차 길어 가고 낮은 차차 짧아져서 동지(冬至) 날에는 맑이 한껏 길고 낮이 한껏 짧아졌다가, 다시 맑은 길아지고 낮은 길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절(季節)의 변화가 생기고 기후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지구가 떠꾸로 서서 회전 없이 빙글빙글 돌면서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 이치를 분명히 하여 보는 것도 좋은 공부라 할 것입니다. 가을에는 기후가 서늘해지는데 따라서 여러 가지 이상한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수박이 내리꽂히러가 오는 것도 다 기후의 변화 때문입니다. 수박은 빛깔이 내리 오는 모퉁에서 일어서면 곱이요, 서리는 밤 동안에 식어진 차마를 돌

경이나 나무 조각에 수증기가 붙어 될 새도 없이, 때때로 떨어 하면 것입니다. 말하자면 서리는 하늘에서 내려 온 것이 아니라, 지면(地面)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구름이 끼거나 바람이 부는 날 알때는 서리가 안 생기는 이치를 생각해 보는 것은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가을

가을의 특색은 무온한 소목이 열매를 맺는 것과 단풍이 드는 것이겠습니다. 풀과 나무가 붉게 되고 여름에 많이 퍼서 활동하는 목지는 한편으로 자라며 한편으로 열매를 맺는데 있는 것입니다. 열매라고 하면 여러 분은 콩, 피, 사과, 대추, 밤 같은 맛 있는 과일 만을 생각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이나 들깨를 가 보면 어느 줄 어느 나무

하나가 열매 안 맺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그 열매의 모양이 어떻게 되었나 자세히 살펴 본다면 참으로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풀이나 나무는 씨를 많이 만들어 널리 퍼뜨려야 하는데 재 품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까닭에 다른 풀을 뿌려 먹을 것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서리분이 사과나 배나 복숭아를 먹는 때에 그 씨를 퍼뜨려 주는 일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복숭아 같은 높은 씨 한 개를 뿌려 달라고 수덕 같은 작은 풀이 놓지 않았습니까? 사람이나 짐승에게 일을 시키자면 이와 같이 상당한 대가를 주어야 함으로 인위적인 식물들은 자본 안 붙이고 씨를 퍼뜨릴 것을 생각했습니다. 참이나 단풍 나무 씨를 보십시오.



(가을의 열매들)

그것들은 조그만 씨 알갱이
가 큰 알갱이를 하나씩 품어
놓았습니까. 그래서 바닷바
씨를 낚아서 멀리 퍼뜨리게 마
련입니다. 또 안마개비바들
지 그 밖의 몇 종류의 물 새
에는 꼬부랑 가시가 붙어 있
으므로 천승의 다마나 사람
의 옷자락에 얽매 붙어 갈
아서 멀리멀리 퍼뜨리게 마련
입니다. 꼬마나 참 따위는
모양이 둥글둥글하게 되서
서 땅에 떨어지면 한참씩 굴
러 가지 마련입니다. 이런 것
을 실없이 생각하면 안이 없습
니다. 라는 좌우간 열매라는
것은 작으나 크나 실부비
그들의 아이미의 뒤를 이어
나가야 할 생일과 농작이 출
어 있는 위험하고도 오묘한
물건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때, 우리가 바실 한 가지도
주실지 먹을 수가 없는 것입
니다.

안 룡 이야기할 하나
미 하라 물을 막
했습니다. 여름 철의 풀이나
나무잎은 그 빛깔이 모두 푸
른데 그것은 잎사귀 속에
푸른 빛을 띤 염록소(葉綠
素)라는 색소(色素)가 있는
탓입니다. 이 염록소가 잎살
귀 속에서 공간의 식물 모양
으로 일출 하는데 무더로 출
러 온 결과 태양 빛을 가지고
식물의 식료품(食料品)을 제
조하는 재료가 있는 것입니
다. 잎사귀 가운데는 그 밖
에 누런 색소와 빨간 색소도
섞여 있지만 현재 염록소가

★ 어린이 과학 ★ ④

과학자의 일조 리아레스

옛날 기러기의 리아레스
라는 훌륭한 학자가 있었
습니다. 이 사람은 우주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생
각해 낸 제일 제일의 학자
라고 불려도 좋습니다.
리아레스는 수백권이 살고
있는 큰 땅덩어리는 물론
고 달은 태양의 빛이 한사
락서 빛난다는 것, 항성 광
은 서로 자미를 따지지 않
는 빛은 자 혼자 비치고
있다는 것 등을 말했습니
다. 그는 또 1년이 36
5 일이라는 것을 알아 내
고, 일식을 미리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아레스
가 쓴 것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음 사람
이 쓴 것 가운데 나오는 그
의 말로서, 이런 것을 알
아 맞은 것이니까 특별한
것은 모르겠지만, 아들은
미친으로부터 떨어져 우주
나 천이라 하는 것을 따
른 눈으로 보며 이유를
설명한다는 것만은 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리아레스
는 그 말에 이미 가치를
말고하고 이미 가치 설
명을 하였습니까.

많아서 푸른 빛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것이 가을
설이 되면 푸르도 온다 오는
수분이 부족해지므로 염록
소가 죽음을 못하게 되며,
다라서 잎사귀 공장을 폐지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염록소만은 다시 출
거기도 불려 들어 가고, 나
머지 누런 색소와 빨간 색소
는 그대로 남아서 누렇게 필
진 단종이 되었다가 말라져
떨어질 때는 것입니다. 그 때
어진 잎사귀는 색이서 땅 속
으로 들어 가서 식물의 비
료가 되는 것이니 식물은 이
느 부분이나 하나도 갖 없이
치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을의 자연

색이 새출만들 것이 이 때에
도 알렸습니까. 라는 이상치
몇 가지만을 가져오도 알다
든지 공부할 할 수가 있으리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바람이 오를 것은 스러고 가
는 서늘하고 선뜻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여러 분 이런
기본 공은 때때 힘껏 공부
하십시오. (그림·정·현우)



아름다운 가을의 꽃

정기 작림 작고 그림 이 덕상

지긋지긋한 며칠도 서늘한 물러가고, 깨끗하고 상쾌한 가을이 돌아 오니, 산과 들에 가지가지의 가을 꽃이 피기 시작한다. 그 중에 특연히 아름답고 눈에 잘 띄는 것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하자.

먼저 "학부살이" "계학부살이" "파실학부살이" "구절초" "마취구절초" "비프성이 나물" "산국" 등

속씨 보통 한국화라고 부르는 들꽃의 자지 및 노란 빛 흰 빛의 가을 아름다운 꽃이 가을 파랗게 피어 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누구나 한국화를 더하여, 한 가지 피어 서 가슴에 꽃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다.

향기 좋고, 빛 좋고, 모양 좋은 감초(甘藷)이 피기 시작하면, 가을도 벌써 깊었을을 알리라. 그 밖의 국화(菊花)와 속씨(菊科)의 속씨는 들꽃으로는 "백취" "황포물대기" "이코물대기" "황취" 등속이 있고, 또, 다른 것은 "상수" (상술·비술) 꽃에 딸려오는 "포덕비바늘" "백백 봉이 적는" "옥"

참고 가을에 꽃이 피는 국화와 서늘하다.

"모마지" 꽃은 꽃이 붉은 가을에서 피는 꽃이다. "갈매" "소갈매" 등속의 모마지목(槲皮科)에 속하는 가을 들꽃이다.

노란 꽃이 피는 "마마미" 흰 꽃이 피는 "무덤" 등속의 가을 꽃으로도 이름이 높다. 산야(山野)에 "마마미" "무덤"



꽃이 피어 서 널리 차던 가을 맑이 더 한층 싸늘하다.

"백취" 속속은 감초(甘藷)와 하여 결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나, 꽃 피는 자라는 감초로 커덩갈 아름답다. 이 속속에는 종류(種類)가 많은데, 그 중에 대부분을 가을에 꽃이 피는, 볼 가치 많은 "비술 적취"는, 그 잎사귀를 조금만 뜯어서 입에 넣어도

매운 맛이 나지마는, 꽃 피는 그 자라는 차편하기 짝이 없다. 그 밖에 참가해 많은 "백취" 물가해 많은 "꽃백취" "모마미" "파보백취" "미꾸미남시" 등속도 다 아름답고 귀여운 꽃이 피는 것 같으므로 "백취" 속속의 꽃의 미(美)를 감상(鑑賞)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자연미(自然美)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시냇가 들꽃에 피어 있는 "물물수아"의 품은 자주 빛의 꽃도 아름다운 가을 꽃의 하나다. 이 꽃은 잘 관해 심는 물물수아 등과 비슷한데, 작은 배(船)를 탄다면 것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차차 열매도 익을 때가 되었는데, 잘 익은 열매를 조금 건드리기만 하면, 그 속의 씨가 물살과 같이 휘이 나오는 것도 재미있는 현상이다. 이것은 식물(植物)이 씨를 퍼뜨리는 방법중의 하나이다.

"용담" 꽃은 모마 가지 빛의 아름다운 꽃으로, 역시, 가을 정서에 맞는 교묘한 것이며, 쓰고 쓴 취약(胃藥)으로도 유명한 "송담"의 꽃은 "송담" 꽃을 따서한 것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빛은 흰 빛의 가장고, 그 잎사귀는 송담(松葉)과 같이 가늘다. "용담"의 무미로 취약

이 피어지는, "손풀"을 뿌리 채 그늘에서 말려서 두고, 때 아플 때 다터 먹으면 속효가 있다고 한다.

"물매화풀"의 꽃도 매우 귀이운 꽃으로, 때 잘 드는 산비탈이나 길가 풀숲에서, "매화꽃" 비슷한 고상한 흰 빛의 꽃이 가을 바람에 나부끼고 있는 것을 보면 적막한 가을이 한층 더 지막하여 진다.

"초오"의 꽃도 요새 피는데, 이것은 독초(毒草)로 유명하다. 그 뿌리째 아주 부서운 독이 있다. 만일 잘못하여 조금이라도 그 뿌리를 입에 넣으면 반드시 큰 야당이 나오야 한다. 내게는 생명을 빼앗기게 된다. 옛날에 화살에 묻혀서 적(敵)을 괴롭히던 것도 이 "초오" 뿌리의 독이다. "초오"의 꽃은 호박 자저 빛으로 그 모양은 호박 비슷하게 생겼다.

"오이풀" (수박풀)은 늦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연지 빛의 꽃이 핀다. 그 자태나 그 빛이 아무 장식도 없으나, 이연지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힘이 있다. 장식 없는 미(美), 이것이야말로 자연미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억새"가 진 이삭을 바람에 나부끼게 되면 가을도 한참이라 할 수 있다. "억새"를 사람들은 흔히 "갈대"라고 한다. 정말 "갈대"는 물구멍이 때 나는 풀이다. 역시 가을에 이삭이 나온다. "억새"의 흰 이삭이 한가위 밝은 달빛에 비쳐서 휘날리고 있는 그 자태는 참으로 아름답고 시원하다. 하이킹 손님이 "억새"를 뛰어들어 가지고 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

"페랭이꽃"도 가을 꽃으로 유명하다. 늦은 여름부터 첫 가을까지 핀다. 연분홍색의 꽃이 푸른 풀숲에서 늦은 자태는 사랑스럽기 그지없

다. 온실에서 재배하는 "카야네손"보다 훨씬 신선하고 순박하다.

"물매풀" "산박라" "향유" "오미방" 등은 모두 자저 빛의 작은 꽃이요, "작은 사위질빵"은 눈

(露)과 같이 된 작은 꽃들이

를 가을부터 풀숲에서 보일 듯 말 듯 하느저거리고 있다. 요새 풀길 산길을 걸으면, 형형 색색의 작은 열매가 꽃이나 양말에 달라붙어서, 귀찮기 짝이 없다. "도둑놈의 갈구미" "큰도둑놈의 갈구미" "질신나물" "취부름" "도꼬마리" "진득찰" "도대미바늘" "사상자" "수풀조개풀" 등속의 열매가 그것이다. 이것을 때어, 비벼버리면 하나 하나 손가락으로 집어 떼어 없으면 안된다. 손질하는 것 떨어져지지 않는다. 이것은 무말할 것 없이 사물히 그 처를 털어 버려버리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수미들은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이 문해 붙었거든 될 수 있는데도 그 세가 잘 설명한 꽃을 가려서 연도 록 하는 것이 좋겠다.

가을 꽃으로 유명하기는 "싸리꽃"이 제일이다. 싸리에는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도 "물싸리" "소록싸리"가 제일 흔하다. "싸리꽃"이 가을 바람에 휘날리면 신선한 맛이 저절로 난다.

많은 가을 꽃 중에서 때로가 될만한 것을 날더리 고르라면, 첫째 "싸리" 둘째 "물국화" 세째 "도라지" 네째 "아타리" 다섯째 "억새" 여섯째 "페랭이꽃"을 꼽겠다.

"흰병풀"은 나뭇군데에 있지 못할 자연의 색끼요, 그 뿌리는 약재도 쓰지만 전분(澱粉)이 많으므로 배용식



(沈沈)이 된다.

가을의 자연미를 한껏 맛 보려면 고원 지대(高原地帶)를 찾아 가라. 평강 고원(平康高原)은 지금은 원수의 38 산이 끼여 있지만—그리 높지 않고, 교통(交通)도 선함으로 서울서 하루의 소풍지로 적당한 곳이다. 9월 경에 이곳을 찾으면 그야말로 천하 만홍(千紫萬紅)의 백화(百花)가 난만하여 봄이듯 봄, 천국(天國) 아닌 천국을 이루고 있다. 꽃밭에 풀 배 채하고 두리누워 한없이 푸르고 높은 하늘을 쳐다보면 모든 시름 다 잊어 버리고 오직 맑고 깨끗한 정실만이 서리게 된다.

가을이 짙어 감을 따라 나무들이 단풍이 깔기 시작하면, 풀들도 다우어 가며 물이 든다. “담쟁이덩굴” “까마귀머루” “새머루” 등속의 “포도과 식물”(葡萄科植物)은 단풍이 잘 드는 식물들이다. 이밖에 “대극” “큰까치수염” “취송이풀”(이질풀) 등속의 잎사귀도 꽃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단풍이 든다. “물단풍”도 가을의 들쭉을 이야기하는 때 빠뜨려서는 안된다.

예쁘고 고운 꽃이나 잎사귀를 뜯어서 책 갈피에 넣었다가 그리운 동무에게 내 고장의 가을 소식을 전하여 보자. (그림·김 의환)

있는 것이 편지하셔서, 이보다 말미암아 일과와 손 같은 직접 외기(外氣)에 닿는 피루도 전조해줍니다. 이것이 가을의 상제한 까닭입니다.

다음에 가을에 잘 보이는 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태양계(太陽系)에 속하는 유성(遊星) 가운데 큰 것을 유성 혹은 대유성이라 하고, 작은 것을 소유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어느 것이나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대유성 중에는 특히 큰 것이 여덟 개 있습니다. 그것은 태양과, 수성(水星), 금성(金星), 지구(地球), 화성(火星), 목성(木星), 토성(土星), 천왕성(天王星), 해왕성(海王星)입니다.

수성은 태양 쪽으로 있는면은 항상 200 도 이상의 온도가 되며, 그 반대 면은 영도(零度) 이하 200 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생물(生物)은 전혀 발생할 수 없으며, 항상 태양과 전후하여 나오고 들어 가고 합니다. 지평선(地平線)에 가깝게 보이는 때가 9, 10 월입니다. 다음에 금성은 지구보다 직경(直徑)이 218 마일(哩) 작습니다. 또 이것은 다른 별보다 빛나는 것이 태양과 달의 다음은 잡니다. 또한 금성이 나타나는 때에는 그 주위에 광채 나는 선(線)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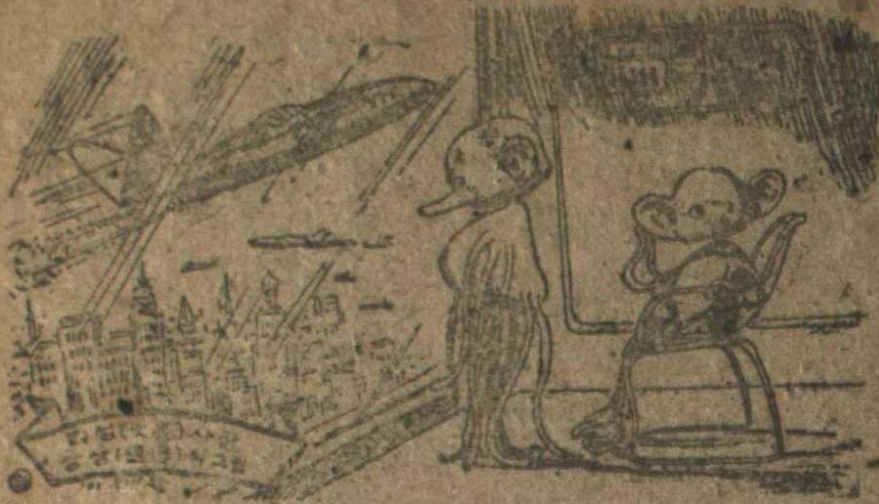
기상(氣象)과 천체(天體)

서울 추우소 소장 정래준

가을이란 음력으로 7, 8, 9 월을 말합니다만 역학(曆學)으로는 수분(秋分) 즉 9 월 21 일부터 동지(冬至) 즉 12 월 21 일 사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후학(氣候學)으로는 9, 10, 11 월을 가을이라고 합니다.

가을도 봄과 같이 낮과 밤의 시간이 같습니다. 가을에 하늘 빛이 짙푸르게 되고 바람의 잡각이 달라지는 것은 9 월 초순에 시페리아 대륙

(大陸)에 고기압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로부터 대륙 공승에 먼지가 비교적 적은 마른 공기를 북서풍이 짙어 오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륙에서 불어 오는 공기는 원래 온도는 알은 것이나 오는 도중에 길고 길어서, 그 동안에 더워지므로 기온으로서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기 중에 섞여 있는 수증기가 적다는 것, 즉 공기가 건조(乾燥)하여



의 대기라고 하는 것인데, 그 온도는 약 65 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성 상 금성과 수성에는 위성(衛星)이 없는 것이 다른 별과 다른 점입니다.

화성은 지구의 반쯤 되는 별로서 온도는 지구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지구에 가깝고 광속도 편히 하어서 그중 자세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화성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고 미국 하아바드 대학 선생님이 말하셨습니다. 그러면 화성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모양을 할 사람일까? 화성에는 공기가 적은 고로 적은 공기 속에서 능히 살아 갈 사람이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화성의 사람은 우리보다 큰 뼈(骨)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니까 가슴이 넓 나와야 하겠습니까. 또 공기가 적으므로 소리가 작게 들리는 까닭에 귀가 크겠고 따라서 코도 대단히 크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저서도 대단히 말만 되어서 모든 것을 기계력(機械力)으로 하여서 자외히 건

어 다니는 것과 손을 쓸 필요와 없어도 손과 발이 없으나, 기계를 만지기 위하여 손가락이 발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또 입이 작다고 합니다. 그것은 문명인일수록 항상 자양분이 많은 음식을 조금씩 먹는 관계지요. 참 생각만 하더라도 재미가 있는 일인데, 정말 사람이 있을까?

다음에 목성은 유성 중에 제일 큰 별이 됩니다. 지구의 3365 배나 된다고 하는데, 온도가 낮아서 영하 140 도라고 하니 목성 자체가 기체(氣體)와 액체(液體)의 중간의 별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성은 그 주위에 많은 별(星)이 있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천왕성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보아볼 수 없으며, 끝으로 해왕성의 그 고리는 지구의 161 년 280 일이라고 합니다.

먼저 달과 위성(衛星)이 몇 개 있는가? 유성은 자락은 별에 따라 있는 별로서 지구에 한 개, 목성에 아홉 개, 화성에 두 개가 있습니다. 지구의 위성은 죽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것을 보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유성(流星)이라고 합니다. 유성은 공중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꼬리를 길게 끌고 가면서 없어지는 별입니다. 때로는 한 개씩 날지만 개월마다 마치는 비오듯 하는 일도 있습니다. 지구에 가까이 오면 지구의 인력으로 마르거나 내려 오게 되는데, 도중에 공기와 마찰하여 굉장한 열(熱)을 내며 타 버리는 것입니다.

④

비록을 노래하는 곤충들

국립 과학 박물관 단장 조 북 성

상기한 바와 같이 살았을 때를 우리는 가을 철을 맞이하는 곤충 새끼는 과연 어떠한가? 무미한 여름 철에, 다행히 해

모를 당하지 않고, 무사히 지난 안락계의 최고 성취의 향이 무리들은 자라 죽어갈 원시적 악기를 접하게 하고

선수의 준비에 본말하다. 중
 영하고도 면밀한 "배양" 무
 리를 상대는 악질 분자라고
 는 한 눈도 집어 낼 수가 없
 으나 때때로 기가 미칠 때 있
 다. 선의 같이 정확한 "배양
 이" 무리들은 준비가 필요하
 면 하나 같이 손을 비이더 성
 의 있는 표정으로 밀어 가도
 지 "집도아" 라는 필화 하필로
 놓소이다. 넓기도 하나이다.
 정화스럽지도 모이이다. 하
 늘의 정화를 아끼지 마시고
 우리 세력에도 내리 주시옵
 소서! 우리 조선 땅에는 정
 화의 정자도 없소이다" 라는
 뜻이 많이 새는 글로 모
 으고 무아 불상으로도 멋이
 풀이 곡목한 곡조로 연주를
 계속하나 들리는 곡조는 예
 없이 상쾌하다는 것보다도 일
 승의 비애를 느끼게 한다.
 이리하여 이놈들은 비록만
 악할까? 이유를 살펴볼까 할
 까보자. 이놈은 곤충학상 "배
 양"과인제 생긴 모양은 육
 식 모양으로 말라 버렸으며
 자립하려는 실 아닌 세모시
 잠양이를 걸었으니 선선
 하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수

술 것 같이
 보인다. 실
 들조차 "배
 양" 인자
 라 "장"이
 가 붙었
 으니 상류
 계급에 속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런 집 저런 집을 수리 마저
 말하자면 실해 갖지 않는
 을 입고 잔잔한 원시적 악기
 를 들고 허공 필연해서 하
 말 처다보며 미곡을 연주하
 는 음악 "장"이"니 입을 꼭 없
 는 불쌍한 필레의 하나이다.
 "배양"의 귀를 따라 나서는
 들은 "귀뚜라미" 이놈은 곤충
 학상 "귀뚜라미"라 딱 속하나
 "배양"와는 인연이 없지 않
 은 종류가 하나이다. 이놈은
 온몸 몸이 뽕뽕하고 질박하
 여 차림장미도 자주 팔려
 아도 더럽는 줄 모를 뒷걸의
 옷을 걸었으며 성일은 시골
 처녀 모양으로 라도 수줍이
 기 일상 정직한 곳의 숨이 있
 으며 짙은 눈이나 붉은 눈이
 나 이마가 빛이진 것이 특징
 이다. 이놈
 은 이상과
 같이 처녀
 기분을 기
 단 없이 나
 라내고 있
 으나 잔동
 해 걸러진
 두 조각의
 악기로 어
 스를 달랠



(원주하는 "귀뚜라미")

때 한 곡조 읊으나 이것 역
 시 불멸한 미곡이다. 이놈을
 붙어 온종 여이를 속이고 때
 달하여 가도지, "배는 수백 년
 전 일인지라 중국어에서 살던
 수라 일조물이 으스스 달랠
 때 궁중 들 들들해서 한 곡
 조 읊었더니 때마침 바람
 이 나왔던 궁녀들이 우리
 들의 노래를 취하여 무엇이
 요마지도 애들이 우느냐고 수
 미 선조 "귀뚜라미"를 잡기를
 시작하였었다. 궁녀들은 잡
 아야 죽인 것이 아니라 좋은
 집을 지어 두고 예일 맛있는
 음식을 주어 가면서 우리를
 최 노래를 찬상하였었다. 그
 령게 지내면 상해 천성인저
 라 할 수 없다. 우리들이 별
 무를 좋아하는 것을 안 궁
 녀들은 우리들의 노래를 들
 는 것보다도 권투 시합을
 시키는데 취미를 갖게 되어
 영양분을 주서 가면서 시합
 만 시키게 되었다. 이것이 궁
 중 안에서만만 아니라 일반
 민중에게까지 보급이 되었으
 며, 더욱 유감인 것은 우리
 들의 동감한 시합이 오락적으
 로만 하였으면 좋겠지하는
 이것이 변하여 도박화하였



("귀뚜라미"를 기르는 모습)

다. 그러므로 현재 중국에서는 가을이 되면 수리 동지를 잡아다 잘 먹이는 것은 좋으나 반드시 막대한 금전을 대고 전루 시험을 시키니 이것은 "퀴푸라미"의 전루 시험이라는 미명 하에 도박을 장려하는 데 악용을 당하고 있으니 섭섭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퀴푸라미"들의 입장으로만 생각하면 인간들이 귀중히 여기고 고향 진미를 먹기 싫도록 풍부하게 주는 것도, 원기도 나고 환풍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조선 땅에 사는 우리 "퀴푸라미" 무리들은 전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먹을 것조차, 원하지 않는 큰 흉수로 인하여 부족하여졌으니 비육이 안나오고 어찌 회복이 나오겠나뇨"라고, 뚜렷이 대답

하니 불쌍하고도 가엾도다. 이럴 때에는 손뿌뿌만 말할 수 없는 교생을 하다가 어머가 되어 나타나 즐거움에 이기지 못하여 마음껏 노해 하다가 실한이 없이 죽어 버리는 "메미" 무리들은 무미운 여름 날의 성악제의 전형이다. 18 종이나 되는 조선 "메미" 종류의 대부분이 여름의 곤충으로 유명하며 그 중의 한 종류 "늦달 메미"라는 놈이 있으니 이름은 아무 짐으로 보아도 괴물이다. 여름 동지들이 다 죽어 돌아간 후 9 월경부터 10 월 말경 사이 해 나타나 홀로 고독하게 지낼 때에 슬피 수니 울는 공물 역시 서럽도다. 이름은 어찌 하여 9, 10월에 나타나 홀로 애달미 수는고? 이것은 조물주의 장난이라 명백히 말

할 수 없으나 이름이 발견된 것은 1922년 조선에서 생긴 일이다. 그러므로 이름은 조선 특산 종으로만 알고 있었으나, "중국 할수 남기"에서도 10월에 이름을 재발하였으니 어떤 나라를 먹은 하고 9, 10월에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고 세여있는 일이다.

이 밖에 "메뚜기"와 "잠자리" 종류 중에도 가을철이 되면 나타나 환풍을 하는 놈이 많이 있으나 도시 환풍하는 시기가 짧고도 기후가 서늘한 지라 날개에 장애가 되고 몸에도 지방분이 적어 모이며, 취하는 행동은, 모아도 활활한 얼굴에 수취와 환풍이 나날이 말라 붙어 가니 떨어 저울 저울 곳을 구하려고 떨어는 때 도가 뚜렷이 나타나 있다.

가을과학

겨울 준비에 바쁜 동물계

국립 과학 박물관 석 주 명

가을의 동물들은 겨울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털(毛)이나 깃털(羽毛)을 가진 짐승이나 새들은 여름철에 가졌던, 잘고 성진 털이나 깃털로는 추운 겨울을 지낼 수가 없었으니, 이 가을철에 그 털이나 깃털을 길고 뻣뻣한 것으로 가는 것이다. 같은 짐승이나 새라 해

도 여름철에는 그 털이나 깃털이 잘고 성기던 것이 겨울에는 길고 뻣뻣한 것으로 변하는 것은 이 가을이나 봄철에 가는 관계다. 가을철에는 잘고 성진 털이나 깃털이 빠져면서 길고 뻣뻣한 털이 나오는 관계로, 짐승이나 새들에게는 가을철을 지내는 동안에, 어느덧 두툼한 털 가죽(毛皮)이나 깃가죽(羽皮)이 생겨서 겨울이 와도 수취에 잘 견디게 준비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가을에 털깃(毛羽)이 빠지는 것은 몸철에 길고 뻣뻣한 털깃이 잘고 성진 것으로 바뀔 때처럼 거칠어서 보기에 흉한 일은 없다.

대개의 짐승이나 새들은 그러하거나, 이제 보통 짐승류와는 특별히 다른 종류를



산물 중 물어 보기도 하였다.

"곰"을 겨울철에는 겨울잠(冬眠)을 자고, 여름에 봄과 같이 나온다. 그런 관계로 곰은 가을철에는, 동물이나 식물을 먹으며, 닥치는 대로 먹고, 많은 영양분을 몸 속에 간직하는 것이다.

"제비"나 "기러기"같은 철새(候鳥)들은 계절(季節)에 따라 옮겨서 사는 관계로, 겨울을 가는 일이 별로 없다.

제비는 전혀 벌레만을 먹고 사는 관계로, 수리(洑山)와 같은 온대 지방(溫帶地方)에서는 겨울을 날 수가 없어서, 이 가을철에는 다 자란 새끼를 데리고, 따뜻한 남쪽 열대지방(熱帶地方)으로 날아간다. 열대지방은 늘 여름철만 있는 지방이니, 벌레가 항상 많아서, 살기만 하면 되는 관계로 몸집이 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온대 지방으로 날아 온다.

"기러기" "오리" "무우미" "곤이"를 같은 새 종류는, "제비"와는 반대로 겨울철에는 철새임을 알 수 있다. 이 종류들은 겨울철을 싫어한다는 것보다, 봄과 여름도 많고 곡식만 먹는 관계로 오히려 서늘한 겨울을 좋아한다.

가장 코뿔의 동물인 짐승이나 새에서는 어떠한가? 그 새끼 동물에서는 어떠한가?

"뱀"이나 "개구리" 종류에서는 모두 겨울잠을 볼 수가 있으니 이 가을철까지라는 것



새로 된 교가들★

서울 태평 국민 학교

금수강산 꽃동산에
봄이 와서 화려하니
이런 월근 우리들은
힘을 드려 공부하자
우리 나라 훌륭하게
태평 학교 훌륭하게

단군님이 지어 뵈신
우리나라 조신 강토
억척만년 지키려고

씩씩하게 일할자
우리 나라 훌륭하게
태평 학교 훌륭하게

삼천만의 우리 동포
한 어머니 자손이니
굳센 나라 세우려고
손을 잡고 사랑하자
우리 나라 훌륭하게
태평 학교 훌륭하게

어떠 분과 학교 교가를 써보아시면 "소학생"에
차례 차례 이 드리겠습니다. 보내실 때에는 교포도
잘 그려서 같이 보내십시오. (권필성)

모든 이 가을철에는 좀더 잘
먹어서 영양분을 많이 몸
속에 간직하는 것이, 위해 말
할 몸매와 꼭 같다.

늦 가을에는 "뱀"이나 "개
구리"를 잡아서, 해부(解剖)해
보면 몸속의 누르스름한 지방
(脂肪)이 많은 것을 항상 볼
수가 있다. "뱀" 중에서도 "살
무사"와 같은 무사(毒蛇)의 독
은 이 가을철에 가장 강력
해서, 이 때에 사람이 물려
지면, 여름철에 물리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불
본이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고 있
느니만큼, 계절에 따라 변동
이 많지가 않아서 겨울잠을
자는 일도 없고, 따라서 이

가을철에 비해 말한 바의
계간과 따르는 변화가 없다.

많은 곤충류는, 그 일지
(成虫)가 가을철에는 자기
생명의 마르막 때가, 가까울
을 알게 된다. 그래서 여러
씩, 알갱이 따르기도, 알
달면 몸들이라오기도이로 딱
을 지어 알(卵)을 낳게 된
다. 때로는 무슨 종류나 수
컷이 많고 알갱이 적은 관계
로, 짝을 짓지 못한 수컷
들은, 알갱이를 부르느라고 울
기를 시작한다. 이 우는 벌
레는 도둑이 수컷이며, 그 우
는 음악의 천성을 가진 몸
들도 많지만, 때로는 알갱이
짝만 지어지면, 울기를 그만
두는 것이다. (권)



가을의 생리 위생

의학 박사 정 진 옥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를 주의하여 살필 때에만 제멋대로 있는 한 개의 법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네가지 계절에 있어서 모든 생물은 매개가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봄에는 생명의 짜이 모고 여름에는 쑥쑥 성장을 하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어 목적을 완성하고, 겨울에는 휴식을 하고 소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봄과 여름에 힘껏 일해서 가을에 일한 과실을 충분히 받아 가지고 겨울에 편히 먹고 사는 셈이지요.

우리 신체도 이 법칙에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름이 점점 가까워지는 아늑하지만 신체의 모든 세포는 봄

여름, 가을에는 대단 활발히 활동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신진 대사(新陳代謝)가 왕성하게 됩니다. 몸에는 많은 핵내포기가 저장되어 겨울의 휴식때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을에는 누구든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음식 맛이 좋아지고 많이 먹어 잔 사이므로 몸매 살이 오르게 됩니다. 동계물 해 모아도 1년 동안에 가을이 제일 힘이 저습니다. 속담에 가을에는 말도 살찌더라고 그러지요. 참으로 가을은 건강의 계절입니다.

봄과 여름을 무사히 지내 온 우리는 가을은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공부합시다. 모두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하여 더듬고 명랑하고 유쾌하게 살갑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시험하고 단련하기 위하여 수미가 견딜 수 있는 최대 한도의 활동을 해 봅시다. 누뜻누뜻하게 익은 곡식의 바다를 때리며 말이 무릎모퉁이 온 길을 걸어 보는 것도 좋고, 높은 단풍잎과 맑은 시내물을 따라 뛰놀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사랑하고 그 속에 파묻혀 생활함으로써 우리는 무한한 건강의 비결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가 요구만 하면 언제든지 아무런 값을 받지 아니하고 가장 좋은 보약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연이 주는 여러 가지 선물을 받아들이는데 어떠한 준비를 하여 어떠한 주의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제일 먼저 우리는 기생충

이도 몸을 꾸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복욕가(敎高家)의 말에 의하면, 송아지는 잠잘 때 가끔 머리를 치거나, 파수로 움직이거나, 두 발과 꼬리를 움직이거나 하여, 일대 일대 하고 움직이고 합니다. 아직 것을 떨어지지 않은 송아지는, 자고 있으면서 젖을 먹는 시늉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열매를 꺾어온 새끼입니까?

고우즈만 학자는, [대뇌(大腦)]를 때 미련 개에 대하여, 13개

짐승들도 꿈을 꾸나?

이 종 환

어떠한 학자의 사색자들의 실험과 관찰에 의하면, 자람 이외의 동물들도, 깨는 자면서 꼬리를 흔들거나, 몸을 뒹굴러 움직이거나 하는데 그것은 잠을 꾸는 것일 것이라고 합니다. 쿠루이 드로오젠이란 생리 학자(生理學者)는, 보통 개는 자고 있으면서 꼬리의 양 끝 중 어떤 곳을 꿈꾸는

머리까지 턱을 짚을 듯한 것은 몸짓을 하고, 때로는 그 모양도 흉한 꼬리를 뒹굴러 움직이는 것 같고, 사냥개는 길 세 없이 발을 움직여 낚은 목소리로 짚는 일이 있다 합니다. 달로 잠자고 있을 동안에 귀를 흔들거나 움직이는 일이 있다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짐승과

우리 과학-진람회를 열면서

조선 과학 교육 동우회 회장 이학 박사 이 래 규

이 주연서라도 못
감을 사 오게 (결
경우가 많이 생기
니다. 즉 공업이
발달한 나라의 발
을 잃어도 못게
됩니다. 이제서야

여러 분은 일본이 어째서
이런 전쟁에 쫓는가를 생각
하여 본 일이 있습니까?
명정이 적어서 쫓나요? 그
렇지 않습니다. 명정이 용감
하지 않아서 쫓나요? 그렇
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왜
쫓나요? 미국에는 "B92"가
있었습니다. 또 "레미어"도
있었고 "원자탄"도 있었습니
다. 이런 무기 때문에 저 무
섭면 일본 령정도 드디어 항
복하였던 것입니다. 일본은
어째서 이런 무기를 발명하
지 못하였을까요? 일본은
과학이 미국보다 발달하지
못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
면 과학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분은 학교에서 잇과를
배우지요? 이것이 즉 과학
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잇과를 잘 배우고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쟁에
는 좋은 물건을 많이 발명
하였으며, 우리가 상상증지
도 못할 큰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분이 배우
고 있는 잇과는 대단히 중요
한 학과입니다.

여러 분은 자주 독립이라
는 말을 많이 들었겠지요?
"우리 조국은 자주 독립하여
야 한다" 든가, "우리는 자

주 독립 정부를 요구한다" 든
가의 말입니다. 이 말의 의
의는 만 나라의 지배와 간섭
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령 연합국이 이런 미국의
자주 독립 정부를 세워 주었
다고 합시다. 우리 조선의
과학이 유치하면 참말로 자
주 독립하여 나아갈 수 있을
까요? 전대로 그럴 수 없습
니다.

여기에 목화(棉花)가 많이
나는 나라가 있다고 합시다.
그 목화를 따서 실(絲)로 하
고 그것을 짜서 포복으로 하
는 방직 공업이 그 나라에
발달되어 있지 않다면 그 목
화를 이 공업이 발달한 나라
에 수출하여서 포복으로 만
든 후에 다시 수입할 것입니
다. 즉 이런 나라는 목화를
값 값으로 팔고 포복을 비싼
값으로 사 오게 됩니다. 이
런 나라가 자주 독립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나라 백성
은 죽도록 목화를 지어도 옷
감이 비싸서 옷을 입지 못하
게 되기가 쉽습니다. 실사
든이 있어서 옷감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포복 짜는 나
라에서 팔지 않으면 어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
기 나라에 불리한 요구를 들

어려 자주 독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방직 공
업을 발달 시키려면 어떤 목
업 종을까요? 역시 잇과의
업이 필요합니다. 미단 방직
공업만 아니라 모든 공업이
과학 즉 잇과의 힘을 빌려서
처음으로 발달하는 것이며,
이것이 출성하지 않으면 참
된 자주 독립은 모서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합군의 실용적 승
리에 의하여 자주 독립국가로
건설할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있어서 우리의 과학
제와 공업계를 보면 현실일
마가 많습니다. 우리의 과학
제는 너무나 유치하고 공업제
는 기술 부족으로 마비상태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이는 누구일까요?
정치가일까요? 그렇지 않
습니다. 장사꾼은 아닐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순사도
아니고, 판피도 아닙니다. 오
로지 잇과를 열심으로 공부
하는 여러 분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전부
여러 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 분의 책임은 참으로 중
하고 또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거운 짐을 전 우리들

이. 수리가 매우고 연구한-잇
 카운 서로 할로하여 또 서로
 가르쳐 줄 수 있다. 알거나
 큰 도움이 될까요? 이 기
 회를 얻기 위하여 작년에 제
 1회 "수리 지식 전람회"를
 열었습니다. 이를 망각 동안
 에 산책-술라가서 제철한 식
 물, 동물, 광물 표본과 바다
 새 가지, 제철한 어류(魚類)
 화, 조개류(貝類)의 표본 등
 을 비롯하여, 밤을 품어고
 어리를 가져고 많은 전기 실
 양(電氣 鑄子), 전기 쥐덫
 (電氣 捕鼠器), 모난 세망기
 (監難 豫助機) 등, 장난품(劑
 品)과 제철 어류의 수공품
 (手工品) 등을 합하여 500 여
 점의 출품이 들어 와서 당사
 자를 기쁘게 하였던 것이었
 습니다. 그 중에는 어른이
 생각지도 못할 산 말뚝과 신
 말뚝이 많이 있어서 전국 사
 일에 크나큰 서광을 비추어
 준 것은 무엇보다도 기뻐하
 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올해는 제 2회 "수리 지
 식 전람회"를 서울 신 종로
 화신 백화점에서 10월 13
 일부터 약 2주일 동안 열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어른
 이 연구한 결과물 많이 출품
 하여 제 2회 전람회를 성대
 히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
 합니다.

★

전람회에 관한 자세한 내
 용은 각 학교 또는 조선 아
 동 문화 협회에 물어 좌 후
 하시오.

땅 감 박 영 종

땅감이 익었다.

한 쪽 불이 붉었다.

언니는 서울에

시험 보러 갔다.

땅감이 익었다.

두 쪽 불이 붉었다.

언니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

땅감은 붉은데

온통 붉은데

매미는 혼자서

책만 읽는다. (그림·김 외환)



장편 모험 소설

곡마단의 비밀

북극성 지음
정현웅 그림



8. 뜻밖에도 뜻밖에도

거미에서 해낸 눈물의 하룻밤이 어노뎃 밖에서 새벽이 되었습니다.

설움과 불안에 떨면서 거미에서 밤을 세운 상호는, 그때에야 삼골 공현 씨 조선 어관을 찾아 들어 갔습니다.

어관이라고 들어는 갔으나, 별로 쉬지도 못하고 세수를 속히 마치고 아침 상을 받으니, 히도 팔팔하기니와 마음이 조용중저 못하여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 술도 못 드고 밥상을 도도 내 보내고, 방문을 꼭꼭 닫고, 상호는 거울 앞에 앉더니, 얼굴을 면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눈 가장자리에 푸른 실을 하고, 코 밑에 조그만 수염을 붙이고, (이러한 일은 곡마단에서 날마다 하는 것이어서 아주 졸업생이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다시 어관 문을 나설 때는, 어관

하인으로 아까 처음 들어오던 손님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상호는 여관까지 나오는 길도 곧 상점을 찾아 가서, 안경을 바꾸 것이나 손목 깎히는 대로 사서 쓰고, 또 지팡이 하나를 사서 짚었습니다. 이제야 누가 봐도 일본 보코는 상호인 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대담스럽게도 구리개 네거리 명동의 포막집 근처로 갔습니다. 포막집은 물론 다 떨어져 짐작으로 물어 놓았으나, 지놈들이 오늘 아침에 선술을 떠나고 한 떠나는 것을 여기서 짐작을 가져 가고 한 가지 가는 것을 보면 알리라 생각한 까닭이요, 또 한 가지는 혹시 저들이 떠날 때에 순자를 데리고 이 곳을 들머 가기도 쉽거니 하는 까닭이었습니다.

아직 어떤 시도 전이건가는, 포막집 앞은 리에는 여러 사람이 주불주불 뛰다가

남은 점을 튀고 있는 모양이, 오할 줄 떠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리 바르지 않은 것도 같았습니다.

상호는 그것들이 모두 아는 사람들이라, 이것은 누구, 이것은 누구, 속으로도 부르면서,

"저 시냇물도 나를 보고 알질 못할 것이다."

하고 그 근처로 이슬이슬을 아 다니면서, 순자가 그 곳 백 나라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서성거던지 한 시간쯤이나 지났을까? 너무 지리하여 험박한 뚝뚝 다시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그때 언뜻 상호는 발을 멈추고 허리를 굽히고 눈을 노려서 포막집 대저 편 끝을 구석을 쓰아 보았습니다.

"아! 그 노인이다! 그 노인이다!"

일 속으로도 부르짖으면서 상호는 급한 정음으로 끝목을 돌아 그리도 갔습니다.

웃은 데로써 웃히려고, 인
자하고 다정히 보이는 조선
노인! 오오, 분명히 말하야
도 남기고자 하던 최삼촌,
그 노인이었습니다.

민간은 정복 유학 밑에서
노인의 말을 들었고, 듣기
를 잊고 철학을 하였으나,
조선 말을 듣지 못하는 가엾
한 젊은이! 아무 말 없이 일
공만 치며 줄 대며 눈물만
주는데 갓 의었습니다.

노인은 삼촌과 손자를 가
시 일 번 잠잠이라고 말하
고 여기까지 오기는 했으나,
그렇게 구원 받아가 손자를
잡으려고 이 구석에 숨어 서
서 기다리는 삼촌. 손자인지
를 묻는 고프랑크 눈이
가슴이 정열하였습니다. 그
치나 그가 키어는 삼촌의
손. 모르고 부끄러움을 들

정된 데있으나, 그의 두 눈
씩 눈물이, 피는 것을 보고
정나쁜 것같은 감정이 의
습니다.

그의 노인은 활짝 웃어
는 10, 7. 세 되어 보이는 학
생 한 사람을 불러서 사색
시켰습니다. 그 학생은 노인
이 풍악시키려고 데리고 온
노인의 공리 학생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제가 삼촌입니다. 수업은
일주에 잠깐 것입니다. 저
놀음을 죽이려고요."
"오오, 그런 얘기가 있거
만 다른 곳으로 가서 이야
기 하자."
"아니요, 멀리 가면 안
됩니다. 삼촌가 죽지 아
침에 들는 것도 모르니까
요. 여기서 이렇게 숨어

서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삼촌은 어색해 본적이
없는 이야기와, 비관 반해
관하게 된 이야기와, 수일
간일이 10 일이나 더 할
필을 생각하고 삼촌을
소로 가려고 이렇게 침을
이야기하고, 이제 말해 줄
말하며다가 붙어서 지
공한 감정이 도망해 나온
이야기를 모조리 하였습니다.
노인은...

"아아, 그럴 삼촌을 구
원이 없구나. 이제 삼촌
말 구해 내오면 그만 아니
나. 여기서 기다리고만 있
을 것이 아니라, 여전으로
라도 가서 속히 구해 내
오리를 생각 하자."
"물론요, 아무런 생각도
없. 때가 없습니까, 하고
일상히 써지고 있소니까
요."

삼촌 이야기 하고
말은 최삼촌 나오지
않고, 가슴만 두들
며 울기는 것 같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것 없이 다
본 사람이 손잡
고 꾸미고 우선
그 덕분에 말이
가서, 반을 지나
참고 안느면서,
삼촌의 동정을 살
라 보자. 하면 어
떻겠느냐? 그의
다가 어서하면 일
은 없고 노망의
나오게 하지."

삼촌 말을 들 때,



상호는 불안한채 노인의 관
을 파 붙잡고,

“잇!”

하고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
고는 큰 일이나 난듯이,

“저기, 저기.”

하고 가는 소리로 속살거리
면서, 포막 더 건너 한걸음
가마쳤습니다. 노인과 학생
도 그 곳을 바라 보고 눈이
동글하여졌습니다.

9. 힘으로보다 피로

명종 어구 꼭마단 포막집
현 의의 뒷모퉁이에서 변장
한 상호와 의삼촌과 동역 학
생 세 사람이 순자를 구하며
가려는 의논을 하고 싶다가,
상호의,

“잇!”

하는 소리에 말을 그치고,

“저기, 저기”

하는 곳을 바라본즉 과연
거기엔 순자가—지옥해 갔
었던 듯 싶은 순자가 걸어
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걸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무서운 마
귀같은 단장과, 독사 같은
단장 마누라와, 또 그 무하
늘과 함께 걸어 오는 것이었
습니다.

아아, 그 파리하고 생기
없는 얼굴, 물에 젖은 흙 판
이 들어진 두 어깨, 죽지 못
해 끌려 오는 걸음거리 얼마
나 두들겨 맞았으면 저렇게
되었을까 싶어서, 벌써 상호
의 가슴은 매겨지는 것 같았
습니다.

“어떻게 하여 저놈들의 손

에서 순자를 구해 내을
까?” 아른 가슴이 세삼스
데 뛰놀기 시작하는데, 그를
일행은 어느덧 꼭마단 의해
까지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집을 쭈고 있던 놈들이 힐힐
이 단장에게 인사를 하고 다
시 무지런히 쭈고 있고, 단
장은 쭈어 놓은 짐의 수요를
세고 있었습니다.

“이놈들이, 얼른 쭈어야
지. 오늘 밤 차때 늦지 않
지……”

다 세고 나서 단장은 코명
했습니다.

“임이 마세요. 짐은 시간
안에 넉넉히 다 쭈어 놓을
대이니요. 발아난 놈을 찾
기나 했나요?”

“그놈의 새끼 어디를 갔는
지 영영 알 수 없는걸?
그때도 경찰의 손에 저의
안으로 잡히겠지……”

“찾지 못하면 그냥 내버려
두고 가나요?”

“어떻게든지 찾아 가지고
가야지, 그들이 없으면 방
장에 못하게 된 것이 많으
니까.”

그들 그놈하고 찾지 못해
하는 말은 지금 여기 변복하
고 싶은 줄은 으르르 상호를
가리켜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야기 순치로 보면 분명
히 오늘 밤 차때 중국으로
갈 모양인데, 상호를 찾지
못해서 안타깝게 구는 모양
이었습니다.

“아저씨, 저놈들이 오늘 밤
차때 중국으로 갈 모양입
니다.”

“으응, 오늘 밤 차때? 그
럼 이서 순자를 놓치지 말
고 구해 와야지.”

“글쎄올시다. 어떻게든지
오늘 저녁 안으로 데리다
와야 할 데일테요.”

몸이 잘 갖추어 손에 힘을
올리면서 상호와 의삼촌은
안타깝고 하나 그러나 순자
가 지금 자기를 눈 앞에 있
진마는, 구하기커녕 인사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아, 저 짐은 수십 명이
나 되는 데를 가렸는데, 이
편이라고는 말도 못 통하는
육십 노인 한 분과, 16 세의
상호 한 사람 뿐이니 어떻게
데리 수가 있겠습니까?



“알면서도 힘으로는 당할
수 없으니까 피로 구해야
한다. 피로 해야지 힘이
없다.”

상호는 급히 수첩을 꺼내
서 종이 한 장을 떼어 연필
로 무언지 급히 써서 꺾꺾
조그맣게 접더니, 의삼촌이
데리고 온 동역 학생 기호의
귀에 대고 소근소근하혔습
니다.



10. 자전거로 충돌

집 앞 때가 가까워서 곡마단 딱히 짐 부기가 대강 끝나는 것을 보고, 만장 내외의 일행은 순자를 데리고 산 보하 듯 걸어서 진교까지 갔습니다.

잠시 변화하면서 출발하기 딱이 없는 길로 가면서, 일행들은 서를 구경도 오글이 마지막인 것을 심심해 하는 곳이, 이 쪽 가게 저 쪽 상점을 번갈아 보며, 저기이면서 걸기 싫은 걸음을 절 못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순자만은 속으로 가는 소 모양으로 고개를 속으면 채도, 땅만 내뒀다 보면서 힘 없는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갈 뿐이었습니다.

오빠는 지금 어디로 가서 어떻게 있는지 마시 만나지 못 못하고 나 혼자 이 밤에 순국으로 팔려 가면 어떻게 하나 생각할 때에는, 그만 진가해서라도 소머리 들고 싶게 마음이 설어서 울음을 억지로 참아도 걸음마마 눈물이 흘러서 흘렀습니다.

그 때였습니다. 일행이 결을 네거리로 지날 때, 돌연 왼쪽에서 자전거 한 대가 마르릉 마르릉 방울을 울리면서 오는 고도 일행은 이미 저미 마을 채도 비켜 섰습니다. 그렇게 속히 좌우 옆으로 비켜서 길을 열어 주었건마는, 자전거 한 대의 학생은 자전거를 처음 타는 사람처럼 이미 비를 지미 비를 하더니, 기어코 일행 중의 한 사람과 맞부딪고 쓰러졌습니다.

자전거에 부딪히 쓰러진 사람은 순자였습니다. 자전거 한 대 쓰러졌던 학생은, 곧 일어나서 일본 말로 미안하다고 하면서, 쓰러진 순자를 붙들어 일으키고 모자를 벗어 들고 자꾸 짐을 하였습니다.

앞에 가던 만장이 수줍어서,

“이봐, 왜 알 수도 모르는 자전거를 타고 남을 다친단 말이냐? 이 나쁜 놈아.”

하고 떠날 듯이 말머물렀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무어한 머리를 금실금실 숙이고는 재미없이 자전거 채 술다 앉아서, 아까와는 반대로도 총알 같이 말아났습니다.

“흥, 저렇게 잘 타는 놈이 왜 사람을 치었어……?” 일행들은 꺾 꺾한 게 모양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한참이나 섰었습니다.

쓰러졌다가 일어난 순자의 손에는 조그만 종이 쪽지가 쥐어 있었었습니다. 아까 자전거 타고 와서 일부러 순자를 치어 쓰러뜨린 학생이, 순자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그 손에 쥐어 주고 간 것입니다.

“부일까?”

하는 궁금한 생각으로 순자의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오빠에게서……”

하고 생각할 때, 순자는 더 참을 수 없어서, 위험한 것

을 부름 쓰고 절이 가면서 언저리 그 작고 보기는 중이를 피 보았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그때 걸쳐 쓴 글씨,

술자야, 오랜 저서 안으로 어떻게든지 들을 타나와서 정○동 351 인지도 찾아 오니라. 거기서 기다리며. 거기는, 최삼손이 개신 집이야. 상로

분명히 분명히 오래의 글씨다! 오래의 글씨다! 오오, 오래는 무사히 했은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단 혼자 외롭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래를 위하여 도와 주는 사람이 많이 있나보다. 그러기에 아짜 자전거 하고 했던 학생도 그런 사람일 것이 분명하다. 생각할 때, 술자는 살아산 것 같이 기뻐 날뛰었습니다. 그리고 기뻐 밤 엮보았습니다.

11. ○○○ 351

결실때고 지나고 필히 소우 외 시! 절을 꾸러기때 분수란 여관 방 한 구석에서, 술자는 이제껏 빠져 나갈 음을 딱지 못하고 가슴만 파졌마졌 조리로 있었습니다.

처음 들은 동배 이들이라 있어 버릴까 보아 잠도 나고, 또, 찾아 갈 때에 조신 사할찌게 물어 보려면 말을 모르면까 적은 것을 보이고 물어야겠어서, 오래가 어 보일 것은 몇지도 아님하고 가져

고 있으리라 피로도 피로도 하면서, 죽어 죽어 지나 가는 시계 소리해 가슴만 조리로 안았습니다.

먼소레 간다고 평계를 하자니 언소는 첫번째 있고, 앞으로 나가자 하니 한 걸음만 움직여보 이다를 가느냐고 말을 막고, 오래와 외삼촌은 눈이 빠져가 가다미로 개실 때인데, 이따고 있다가 나만 술죽으로 팔려 가질구나 싶어서, 마침까지 하는 속절지도 여운 눈물이 솟자 딱딱 딱딱 떨어졌습니다.

"부어나오! 너 손바 끝고 들이려 보는 것이... 어디로자."

아까부터 술자가 이상한 줄이 조자를 가진 것을 눈척 채고, 눈여겨 보고 있던 판상 박누나가 차라 먼저 물어 술자원 주더 판상을 급히 하고 술이 판을 쥐었습니다.

이것을, 판했으니 큰 일구나 생각하고 술자는 판박 놀라 손을 뿌리쳤으나, 그러나 일은 이미 했었습니다. 술이의 3분의 1을 판박는 손에 남아 있지 않고 3분의 2



나 판박 박누나의 손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떨어진 술이를 뒤는 판상 박누나는,

"안됐다. 그를 있는 곳을 알았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판상이어 어리 부하들의 우두무 울며 슬피서 판자를 뒤렸습니다. 그러나 첫도막이 뒤에서 무슨 공배하는 공배 아픔이 없고, 351하고 뒤쳐 있는 것도, 첫도막을 앞으로 술자 해지고 뒤렸습니다.

그러나 술자는 벌써 첫도막을 입으로 걸어서 복구양으로 삼켜 넘겨 버린 후였습니다.

"술이는 판박박도 너는 공배 이품을 알 것이니라, 내이까 해어. 조년야, 안 될 이이나? 안 될 리야?" 판상의 그 무서운 손이 말 할 때도 있는 판을 꾸미 한 것입니다. 그러나 술자의 힘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조년야" 조리가 나자 판박 판상의 말이 술자의 복과 판박을 떨어졌습니다. 내이 먼저 판박 박는 세간 그곳 같이, 판할 때 죽는 것처럼 술자는 그냥 해 하고 쓰러지더니, 판소리로 있었습니다.

우리 동무 관례송

누더기 옷은 입고
나물 죽은 먹어도,

동무 동무 우리 동무
가슴 난다 불끈

무 주먹 힘껏 쥐고
노래 노래 부르며

살기 좋은 새 나라
세로 다시 꿈 꾸다

점심 밥 못 짜고
월사금은 밀려도,

동무 동무 우리 동무
정다웁다 다 같이.

어찌동무 같이 짜고
노래 노래 부르며

살기 좋은 새 나라
세로 다시 찾는다.

(그림: 김현웅)



“그래도 요년이 한 해야,
어디 어디야 모하리.”
다고 한강 마누라가 말하곤
이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는 그 무드미운 시절기 같은
몸을 세례수로 잘기고 잘기
고 하였습니다. 몸서리 악은
지파 살판은 대갈매를 들면

사 소리 써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픈 소리를 들
이 중 사람이 누구였었습니
까? 맞고 맞고 맞다 맞다 못
하여 순자는 그냥 짜무러서
죽었습니다.
순자는 짜무러기가 기웠
고, 할아버지 대갈매의 소리

지고, 이를 악물고 사지가
떨떨하여 그냥 죽었습니다.
짜무러서 죽은 것을 보고
우 그늘같은 밤이 몰라서,
관공을 리마 일갈씩 뽀는다
사지를 주들리 쫓다 야만 업
사되었습니다.

(계속)



3. 겁쟁 곰 , 주 요 설

"자, 오후 세 시에 다시 와서 우주가 이 흰 곰들에게 희고기를 던져 주기로 하고 인제는 저 쪽 겁쟁곰 구경을 가자."

"곰무름무름 많기무~하지, 썩썩 곰, 회색 곰, 자색 곰, 흰곰, 석머 가지 곰." 그 겁쟁 곰들이 돌아 있는 울타리 앞에 다 왔을 때 삼촌은,

"자아, 어때? 여기가 곰의 집인데. 문패가 어디 있나? 울지 서기 문패가 걸려 있다. 뭐라구 했나 보아라."

(동물원 칠십 번지 곰 동지)

"편지 통은 없네."

"편지가 오면 뭇 문으로 때 달하거든."

"뭇 문이 어디 있어요?"

"저어길 보지."

과연 곰여이 마더가 저어쪽에 모두 모셔서 그쪽 울타리 밖에서 있는 구경군들을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먹을 것을 던져 주지 않는 모양인지 그 중 세 마더가 거기를 떠날서 주춤 주춤 장호네 일행이 서 있는 쪽으로 걸어 왔습니다.

"먹을 걸 좀 던져 주세요."

하고 그 세 마더의 눈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먹을 쓴 곰으로 한 개만." 하고 그들의 입이 해 하니 벌이졌습니다.

"어서 주세요"하고 그들의 몸뚱이가 와우로 흔들 흔들합니다.

뒤에서 종이 주머니 부스럭 소리가 나더니 누가 던졌는지 커서만 때이 한 개씩 낚아 들어 갔습니다. 그러자 나도 너도 하고 모두가 종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 먹을 꺼내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모한 일로 곰들은 그 때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엔 입으로 넘쳐넘쳐 받아 먹습니다. 어떤 곰은 세 발로 서 있고 어떤 곰은 일명이만 땅에

대고 앞 팔을 치어물고 앉아 있는데 모두가 배스를 치자 처럼 때이 낚아 오는 짝짝 입으로 처치 받아 먹습니다. 한 곰은 아주 보기에 모 게으르게 커리고 앉아 있는데 삼손이 떠을 손에 들고,

"이놈아 일어나"하고 소리 물 자르니까 그래도 빨리 일어나 서지 아니하고 천천히 앞 팔을 치어물고 한참 앉아서 커서만 입을 쳐 벌리고,

"자, 어서 움직인 곰으로 한 개 던져 보시요"하는 때로도 서 있습니다.

이쪽에서 떠을 다 던지고 던져 때이 없으니까 어느 곰 때 그 곰들이 눈치를 찡는지 어정어정 모두 저편 쪽으로 갔습니다.

"결국 먹은 것 밖엔 모른다. 우리는 그 곰들을 보고 좋아하는데 그 곰들은 우리를 보고 좋아할 때가 없다. 우리 손에 때가 있을 때만 한 하여 그는 우리들을 친구로



실차하는 것이다. 자아 인젠 지각그마 공의 힘으로 가 보자" 하시면서 삼촌이 그 옆엿 간으로도 앉았습니다.

일 간씩 있는 공은 계속 조그마한 공인데 모두 열이 먹같이 세파왔습니다.

"이 조그만 공 종류는 취발 하여 한 근처에 사는 공인데 그 모가지 아래 명 들면 원형으로 볼 때 다른 데 공과 구별할 수가 있다. 이 공들은 피도 잘 먹지마는 그보다도 이들은 단 것을 더 좋아한다."

우수가 탄 것이란 말에 공씨가 마작 좋아하여 삼촌을 꼭 따르며 지어다들었다. 삼촌은 웃으면서,

"아이들모라도 더 한송 안 것을 좋아하지. 그 상대도 꿀을 제일 좋아한다. 시메리아 쥘만 질도라면 세지에서 유명한 질도인데 그 질도질 가로는 물론 전선대가 줄로 서 있다. 그런데 이 전선대는 가끔 공들이 와서 습격을 하는 것도 파수를 세워서 잡꼭하지 아니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수가 많다."

"왜요? 공기 전선대를 어떻게 하나요?" 하고 이모가 물었습니다.

"이런한 공들이 전선대가 울송하는 소리를 잘 들을 것이 모에서 울송 가리는 줄도 잘못 알고 꿀을 먹으며 전선대만 물어 먹는 수가 많다."

"하하하하!"
"실랑도 좋아하나?" 하고 우미가 물어 보았습니다.

"저것 보려고나."
과연 공 한 마리가 인제는 때를 얻어 먹을 것을 팔던 하였는데 어머니가 감수어 두었던 실랑 덩이를 팔 잔을 때

다 오개 놓모 힘으로 그것을 개이 발 바닥에 꼭 바르더니 그 발 바이를 가장 맛이 있는 듯이 할할 하고 있었습니.

천문표실

문교부 편찬과 김 계택

4. 하늘의 큰 시계

하늘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단 그 초 동안도 쉬지 않고, 전전히 돌고 있습니다. "북두 칠성" "가시오케아" 모 선구에 붙은 세로, 시계 바늘이 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두 칠성"과 "가시오케아"는, 언제나 서로 반대 편에 있습니다. "북두 칠성"이 동쪽 에 있을 때에는 "가시오케아"는 서쪽에, "가시오케아"가 하늘 가운데 높이 있을 때에는 "북두 칠성"은 북쪽 하늘과 땅이 닿는 저평전 근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천구는 24 시간대 한 바퀴 돌니 다, "북두 칠성"이나 "가시오케아"도 "북극성"을 중심으로, 24 시간대 한 바퀴 돌니 다. 그러니까 한 시간대는 15도 돌고, 세 시간대는 45도 돌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지 니에 하늘을 보고, "북두 칠성"이나 "가시오케아"가 어디에 있나 보아 줍니다. 밤중에 다시 하늘을 쳐다보고, "북두 칠성"이나 "가시오케

아"가 얼마나 돌아나 보면, 초지니부터 몇 시간 지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보면, 초지니 어떤 시에는, "북두 칠성"의 끝자 모양의 손잡이 끝에 있는 열이 동쪽에 있는데, 다음에 보았을 때에는 그 열이 동쪽과 남쪽 중간에 와 있으면 45도 돌았 습니다. 그러면 세 시간 지났으니 열 한 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부터 이 방법으로 얼마 전정하여 나간 명정들이 시간을 짐작했다 합니다.

하늘을 잘 관찰하는 사람은 시계가 없어도 밤에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북두 칠성"과 "가시오케아"는, 마치 하늘의 큰 시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 뿐 아니라 하늘을 관찰하는 사람은, 별을 보고 계절도 알아 냅니다. 예전부터 무슨 일이 어디에 오면 모를 짐는대든가, 어떤 일이 어디에 오면 보미 세를 무뎠대든가 하는 일이 있었습니. 그러면 요 다음에 또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제 13 장
명량 대해전
(鳴梁 大海戰)

정세(情勢)는 나날이 급박해졌다.

최적은, 기어코, 우리 수군을 무찌르려 수백 척 전선이 화마를 일으키려 하였다. 곧, 구월 초이래부터 간조(乾島) 바다 위쪽 출몰(出沒)하기 시작한 일본 수군은, 열 사흘날 때는, 그 전 함대(艦隊)가 오마도(五馬路島) 앞 바다에까지 나온 것이다.

이는, 제상 함대 안파(鐵振安泊)·모리 진성(毛利吉成)·관 정출(管政隆)의 쿠미가 거느리는 사파 이 척, 용선(龍仙)이 이끈 이 명파 이프는 대함대(大艦隊)이다.

구월 보름날이다.
이 순실 장군은, 진(鎭)을 전파 수수(全羅 右水營) 앞 바다로 옮긴 다음에, 수군의 모든 장수들을 모아 놓고 약속하였다.

"병법(兵法)에 이르러, 속기를 작정하면, 또더서 잘

역사소설
이순신 장군

박태원 지음 김기창 그림

고, 살기를 작정하면 또더서 죽는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한 사람이 나서서 죽어 천 사람을 두렵게 할까 하였다. 이것은, 마도 저쪽 수군의 정수를 두고 한 말이다. 너희들은, 무더, 목숨을 살려고 설자를 말하려, 만약, 멸할만치라오 영(命)을 지키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군율(軍律)을 시행하려!"

그러고, 장군은 다시 피난민(避敵民)을 애써 일렸다.

"오늘 내일 사이로, 너희가 이곳을 떠날 수 없어야 한다. 너희들은, 무더, 천지마리 다른 곳으로 피하여 가라."

그러나, 제상함대는 듣지 않았다.

"사도 왔을 터나, 저희들이 어디로 가오리

마? 사도 왔을 터나서는, 마가 갈 곳이 없는 저희들이려나." 장군은, 그곳이 중이 되나리 않은 것은 보자, 그들의 피를 얼리 수리 전선 뒤에 붙이게 되, 최정(鎭正)을 잡아서 수군의 기세를 꺾게 하였다.

간기(乾島)는 덕을 내리 없었다.

우리 수군의 승(勝)하고 강(亡)하는 것은 하나, 조국(祖國)의 흥망(興亡)이 실로 이 순실 장군의 두 어깨에 걸려서 있는 것이다.

전선 철두 철미——, 제상(敗亡)한 바깥에서 최정(喪鐘)한 우리 수군으로써, 실로 우리 명량 수군



물을 쫓는 화포(火砲).
 터지는 포탄(砲彈).
 바바를 뒤 덮는 아우성 소
 리:.....

저는, 우리 기세에 잠깐 할
 디어, 감히 앞으로 나오려는
 뜻하고, 오직 밀려서 장군희
 배를 배우며 든다.

한걸, 한걸, 또 한걸.....

형세가 각각(刻刻)으로 위
 험해오던 때, 문득, 돌아 오며,
 수하의 열 한 치 배가, 모두
 밀려서 처된대 떨어져 있어,
 오직 형세만 관망(觀望)하고
 누구라 하나, 앞으로 나오며
 앉는다.

앞서, 원균(元均)의 지휘
 (指揮)아래, 왜적과 싸워서,
 참혹하게도 패(敗)한 풀이바
 척의 형세가 너무나 큰 것에
 겁부터 집어 먹어, 모두가,
 손근히, 도망할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다.

장군은, 곧, 북치고 나팔
 불며, 세 위백 명이 조요기
 (招搖旗)를 세웠다.

이를 보고, 중군장 진 울함
 (中軍將 金 應誠)과 거제 현령
 안 위(巨濟 縣令 安 衛)가 마
 지 못하여, 배를 지어 앞으
 로 나아 온다.

장군은 깃머리에 나서서 소
 리를 가다듬어 꾸짖었다.

“안 위(安衛)야! 내가 군
 법(軍法)에 죽고 싶느냐?
 안 위야! 내가 싸우지 않
 고 달아나면 살 줄 알고 그
 리느냐?”

안 위는 마음에 황공하였
 다.

“제가, 어찌, 감히 죽지 않
 겠사오려가?”

그는 말을 마치자, 그대로
 배를 몰아, 지선 가운데로 말
 리 끌어 갔다.

장군은 다시 진 울함(金 應

誠)을 향하여 세웠다.

“울함아! 내가 중군(中軍)
 의 몸으로, 밀려 피하여,
 대장을 몰아 보며 앉하니,
 죄가 마땅히 죽어야 흠스너
 라!”

진 울함이 또한 황공하여,
 밧발 지듯 하는 울함과 화살
 을 무릅쓰고, 지선 가운데로
 달려 든다.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마
 시 없을 한공안희 악절고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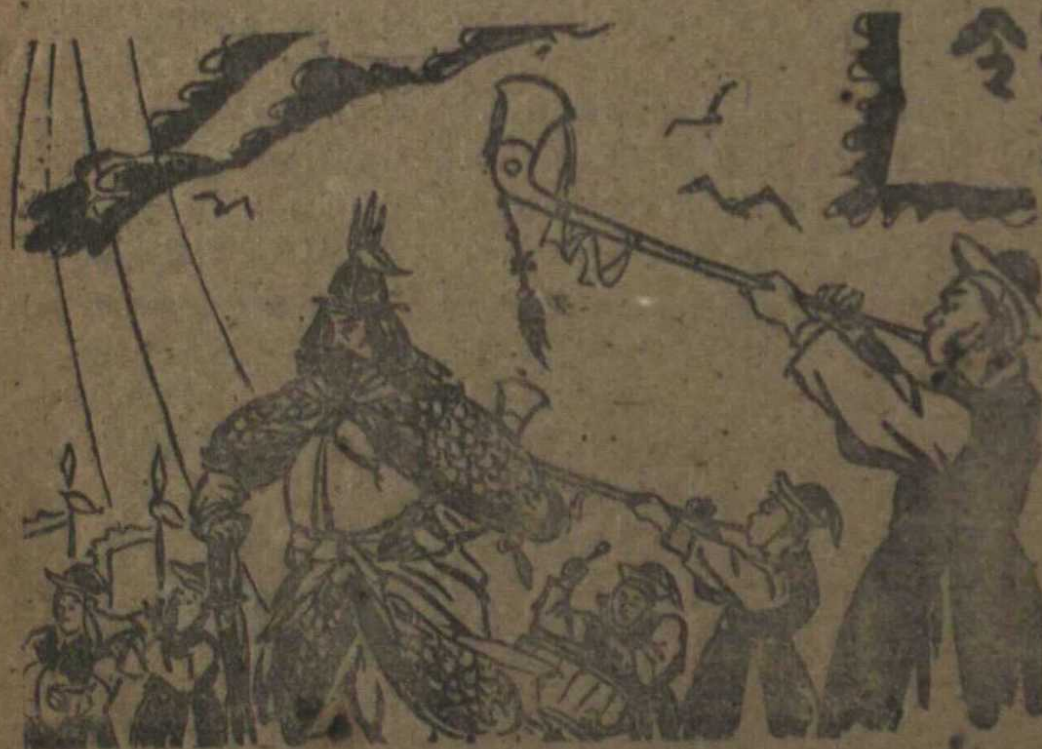
만저 열 두 세 고반한 형
 세로 삼백 삼십 세이 넘은
 자의 대할대를 맞아 싸우며,
 장군은, 오직, 때가 이르기만
 기다린다.

장군이 기다리는, “때”——
 그것은 이제까지 동태서 서
 소로 밀려 들던 조수가, 한
 번 방향을 고쳐서, 서해서 동
 으로 빠져 나가는 순간(瞬間)
 이다.

그때까지만, 속기
 로 적을 막아, 위기
 (危機)를 벗어나면,
 장군의 귀신 같
 은 필승불패(必勝不
 敗)의 미책(秘策)은
 드디어 공(功)을 이
 루는 것이다.

마침내, 때는 이
 르렀다.

말이 서천(西天)
 에 밀려지며, 해협의
 조류(潮流)는 방
 향을 고쳐서 밀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던 물이, 이제
 는 서쪽에서 동쪽으
 로 흐르며 시작하였



후.

처음에는 쓰리게,
 다음에는 바르게,
 차츰 차츰 바르게,
 더욱 바르게,
 더욱 바르게,
 마침내는 달은 말 같이—
 우연(優劣)이, 이해(利害)
 가, 이제는 온전히 자리를 바
 꾸고 말았다. 우리는 조류
 를 타고 나아가고, 저기는 이
 를 거슬러서 우리를 쫓아야
 한다. 더우기, 이 변화(變化)
 는, 때때로써 공적으로 생각
 못하였던 바바.

제국은 당장(唐僭)하였다.
 제국은 남제(南朝)하였다.
 급하고 험한 조류에 밀려
 서 그들이 행동(行動)의 자
 유(自由)를 완전히 잃었습
 니다. 우리 수군은, 마치 사나
 운이 때처럼, 그때도 그 위
 를 돌아 왔다.

물을 쫓는 화포,
 더지는 모란,
 빛깔지는 화살,
 빛나는 장과 안,
 바람조차 우리를 도화서 서
 풍(西風).
 떨어지며, 부서지며, 쓸데
 없어, 적의 함대는 대열(隊列)
 도 바로 하지 못하고, 그
 려도 밀려 바다 밖으로 말아
 내고 말았다.

이 어려움에, 부서진 적의 진
 편이 갈집어 서, 적군의 죽
 은 자가 사천여 명. 적의 대
 장관 정음(淸 政)이란 자
 로 실로 이 어려움에, 우리 손
 에 잡혀서 죽고 말았다.

첩보(捷報)가 서울에 이른



- ①북로 해전 (玉浦 海戰)
- ②서로 해전 (渭川 海戰)
- ③동로 해전 (東浦 海戰)
- ④한산 해전 (閑山 海戰)
- ⑤북산 해전 (北山 海戰)
- ⑥동천 해전 (東川 海戰)
- ⑦영랑 해전 (嶺南 海戰)

날, 장안은 그대로 질척 뒤집
 혀다. 만세 소리에 실 안, 성
 밖이, 그냥 물결었다.

이런 멸망 해전(滅亡 海戰)
 은 앞서 한산 해전(閑山 海戰)
 이 때로 가장 큰 싸움이
 다. 더욱 이 싸움으로 하여,
 한 번 적에게 패하였던 제의
 권(制海權)을, 우리는 다시
 찾은 것이다.

나라에서는, 그 봉이 비질대
 없이 크나 하여, 장군을 승
 정대부(崇政大夫)로 승격(陞
 級)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그러고 보면, 따지는 더 높
 은 작위(爵位)가 없다. 이 따
 음에 전쟁이 끝난 때에는, 장
 군에게 무슨 벼슬을 내리야
 할까? —

이리하여, 나라에서는, 이
 현에는 장군에게 상을 내리
 지 못하고, 다만, 장군 이하
 의 장수들만 벼슬을 높여 주
 는 것으로 그쳤다.

이해 심할때, 장군은 나주

보화포(羅州 寶花島)에 있다
 가, 이듬해, 무술년(戊戌年)
 이 월 열 이렛날, 고금포(古
 金島)도 진(陣)을 옮겼다.

이 고금포는, 강진(康津)
 남쪽 삼십 여 리에 있는 섬
 으로, 산악(山岳)이 중첩(重
 疊)하여, 형세(形勢)가 기이
 (奇異)하고, 또 견벽 큰 농
 장(農場)이 있다.

장군은, 백성들을 쫓아,
 이곳에서 농사를 지 하였
 다. 그래서 군량(軍糧)이 충
 족(充足)하다.

멸망 해전 이 때로, 우리 수
 군의 기세가 다시 장하여지
 며, 남도(南道) 백성들이 장
 군을 의지하여 이 섬으로 모
 여 들어, 민가(民家)가 수만
 호(數萬戶)에 이르니, 그 장
 (壯)하고 흥성(興盛)하기가,
 전날, 한산도(閑山島)에 진
 쳤을 때보다 심 베나 더 하
 였다.

—계속—



로빈·후드의 이야기

이 양 하 번역

미차아드 왕과 왕비의 무
 세스먼⁽¹⁾ 옛날에는 영국에
 는 수풀이 많이 있었다. 그
 중 유명한 것이 왕의 때때로
 사슴 사냥을 하던 사아수트
 의 수풀이라는데, 이 수
 풀 속에는 백들의 보호를 말
 지 못하는 한 세의 활재관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나라 백민에게 겁만
 치는 일을 하여 그들의 정병
 을 모진하기 위해서는 수풀
 속에 숨어 있지 아니하면 안
 되었다. 그들은 한밤중에
 초다니다 왕의 사슴을 잡기
 도 하고 그리고는 돈 있는
 행안한에서 돈을 빼앗기도
 하면서 재물을 모았었다.

이들 무명영웅 한 세 명이
 되었었고 그들의 무명은 로
 빈·후드라는 대담한 사람의
 있다. 그들은 무른 옷을 입고
 활과 화살을 가지고 때로는
 그들이 잘 쓰는 간단한 활창
 과 널따란 활을 가졌었다.

무엇이든지 손에 들어 오면
 그들은 그것을 그들이 왕이
 마 무르는 로빈·후드 앞에
 갖다 놓았다. 그러면 그는
 그것을 골라주게 갈라서 각
 부하에게 적당히 나눠 주었
 다.

로빈은 무학들백게, 큰 짐

새 알코 아무 일도 하지 아
 니하는 분자 이의 자들은 다
 지지 못하게 하였다.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 선재를 기
 원할하였고 또 많이 그들을
 도와 주었다. 그의 집안 사
 람들은 그를 그의 친구로 생
 각하였다.

그가 죽은 후에 세백은 사
 람들은 그가 그와 한 정을
 이야기하였다. 어떤 사람은
 그를 칭찬하였고 어떤 사람
 은 그를 비난하였다. 그는
 감발로 난독하고 무익한 사
 나하였었다. 그러나 그의 사
 람의 친구의 말에는 저
 사람의 그것과는 달랐었던
 것이다.

로빈·후드는 왕의 사냥
 많은 노예가 생겼고 그 후
 수백 년을 주로 왕의 무리의
 조그만 조력수에게서 들리
 었다.

다음 이야기는 그의 활 노
 예 가운데 있는 이야기이다—

로빈·후드는 어떤 날 짐
 가 무른 나무 아래에서 있었
 다. 나무 밑 사이에 새 소리
 들리고 있다가 한 젊은 사
 녀가 지나 가는 것을 보았
 다. 그 사녀는 아름다운 산도
 로 된 풍성한 옷을 입고 장
 중걸음으로 경쾌하게 걸을

걸어 가는데 아주 예쁘스리
 처 보였다.

"이 사람은 그냥 주저" 드
 빈·후드는 말하였다. "오
 니가 결혼하려 하는 걸이
 로군."

다음 날도 로빈은 같은 자
 리에 서 있었다. 얼마 아니
 하여 그는 이제 그 젊은 사
 녀가 짐을 내며 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젊은 여자
 지 예쁘스리치 보이지 아니
 하였다. 그는 몇장 옷을 입
 지 않았었고 한 걸음을 떠
 내며다 발음을 짓고 신음하
 는 소리를 내었다.

"아아 슬픈 날이로다. 슬
 픈 날이로다." 그는 연승 조
 자 승한거였다.

그 때, 로빈·후드는 나무
 아래서 나가서 말하였다—

"어오, 그새! 나와, 내
 유쾌한 구아관을 위하여 내
 활을 본을 가졌나?"

"아무 것도 없습니까. 바닷
 신행과 금한지 하나 잃어는"
 젊은 사녀는 대답하였다. "활
 "골한지?" 로빈은 물었
 다.

"예, 골한지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젊은 사녀는 말하
 였다.

"음, 골인 골저로구면" 드
 빈은 말하였다.

"저는 이 활지를 7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까. 결혼
 하는 날 친구에게 주려고 가
 지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결혼할 작정이었습니
 까. 그러나 친구의 아버지는
 는 사람이 친구가 활을 본

일도 일은 무자 생각한대 발
 수 손으로 막으셨습디다. 그
 지 저는 지금 낙담하고 있
 습디다" 젊은 사내는 말하
 였다.

"네 이름은 무엇이냐?"
 드빈이 물었다.

"저 이름은 알빈·아·에일
 이송지다" 젊은 사내는 대답
 하였다.

"사리코 무엇을 말하냐?
 너를 모아서 무자 생각한대
 가계 전 그 신주를 다
 시 찾아 온단말" 드빈
 이 말하였다.

"저는 돈을 잃습디
 다. 그대실 말하되 무
 자 할 것을 약속하
 습디다" 알빈은 말하
 였다.

"그 처녀 사는 곳
 몇 마일이나 되오나?"
 드빈이 물었다.

"일천 리쯤이나. 그
 리나 그리는 바로 소
 문 경운하게 되 있습
 디다. 그와는 한 몇
 마일이나 되지요" 알
 빈이 말하였다.

드빈은 슬쩍히 거문고 뜰
 는 사람으로 번상하고 그날
 으루로외 문밖까지 갔다.

"누구나? 그리고 무엇하
 기 여기 왔느냐?" 주교는 말
 하였다.

"저는 거문고의 명수를 사
 다. 영국에서 제일 가는....."
 드빈이 말하였다.

"잘 왔다. 난 거문고처럼
 좋아하는 음악이 없다. 물어
 주 팔려 보아라" 주교는 상

냥하게 말하였다.
 "술이 가졌습디다. 그러자
 신부와 신랑은 오가. 신부는
 거문고를 뜰서 춤을습디다.
 드빈·주교는 말하였다.

바로 그때 한 노인이 들어
 왔다. 양손 속은 빌었으나
 나이 많아 어깨가 굽고 기운
 이 없고 머리가 희었다. 그리
 고 그 옆에 아슬아슬 젊은
 처녀가 걸어 왔다. 처녀의
 두 손은 장막하였고 주교는



는 눈발이 그득하였다.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신부가 신랑에게 하자" 드빈
 은 말하였다.

그리고는 처음 커리할 새
 씌 들었다. 다음 순간 수
 들에 명사 두 장이 소루
 슌을 입고 집 문을 손때 들
 고 불을 밝히 셧었다. 그리
 고 드빈이 몸을 지어 가져고
 코외 안으로 들어 갈 때 신
 부의 손 짚음을 알빈·아·에일

이였었다.
 "하, 누구를 신대할 해나" 드
 빈은 처녀에게 물었다.

"저는 알빈·아·에일을 신
 대하섯습디다" 처녀는 알빈
 을 음미히 대답하였다.

"그러면 알빈·아·에일과
 결혼해라. 그리고 누구든지
알빈·아·에일함에서 너를 떠
 나는 사람을 드빈·주교를
 상대로 하지 되는 줄을 알라
 라" 드빈은 말하였다.

그리고는 정말 그
 자리에서 처녀와 알
 빈·아·에일은 결혼
 을 하고 무자 생각
 은 풀자대시 집으로
 돌아 갔다.

이리하여 즐거운
 혼인이 성나니,

신부는 어쌍처럼
 아리타였다.

그리고 그날 즐거운
 주교 술으로
 파란고 파란 나무
 잎 사이로 झा여니라.

주. (1) 드빈·주
 교—영국 전설의 황 황 사
 는 처사. 샤아루드 축제의
 장이었다.

(2) 미차아드왕 (1157—9
 9)—미차아드 1세. "사자의
 마음" 또는 "이예스나 노
 수의 미차아드"라는 필명
 을 가졌던 치열한 정적을
 갖고 모험을 좋아하던 왕.

소년생 작품집

동요 수양버들

경남 진주 최 계 탁

수양버들은 무슨 씨 짓고
 밭고 푸른 봄 하늘도 못 치마쓰고
 진진 양털 저렇게도 고개 숙일까?
 버들 피리 만물먹고 나무가지에
 올라 가는 아이를 떨어뜨려서
 진진 양털 고개 숙여 뉘를 서나유?



동요 바람

서울 광안교 6년 고 기 탁

바람은 바람은 장난꾼 바람은
 길 가는 할아버지 모자 날리지,
 바람은 바람은 침술장이 바람은
 일하시는 우리 엄마 치마 날리지,
 바람은 바람은 학교에 온 바람은
 우리 학교 테국기 뒤편 날리지,



동요 옥 부

전라 부안교 6년 김 훈균



날마다 옥 속에서 일하는 농부
 아침엔 이슬에 맞이 겠고요
 저녁엔 안개에 물이 겠지요.

날마다 옥 속에서 일하는 농부
 오할도 겠으며 가고
 내일도 겠으며 오고.

동요 우리 동네 우물

서울 광안교 3년 최 준현



우리 동네 우물은 거울이라네,
 우리 동네 세월 큰 거울이라네,
 우물 속을 보면은 내 얼굴이 들,
 우리 동네 우물은 요술 거울이세요.

인내의 줄

밤

박수금



하루 종일 요란하게 작고
실룩 실룩 떠돌았다.

“어라, 벌써 네 시간 을 보
니?”

조용하던 교실 안은 열안간
작사해지며 세자가 책보를
가리고 졸음 침잠 중중대
로 파도파도 울며 나왔다.

“아이 캄캄해 밤속이 어떻
게 가니?”

“너나 잘 가라”

관 바깥이 휘이 불고 알파
시아 떠론 일 벌어지는 소리
가 우수수 들리 온다.

“들 꼭 수머 회사 와 올”

“그래 잘라, 잘 가라”.

“잘 가라”

교문을 나온 학생들은 여기
를 저저 쫓, 신발의 향으로도
가는 학생, 화장실 쪽으로도,
선대문 쪽으로도, 전차를 따라
두 가지 길 끝도 향하였다.

저녁실의 일이 있어 조금 늦
게 나온 은희는 종종전음으
로 물레분 앞 명숙이가 전차
기둥머고 서 있는 줄에 가 있

그때도 물어다 보고 있느라
니 떠마침 모퉁이 하나 지남
가 그 불빛에 “침실 모퉁이”라
하는 데 글자가 희미하게 명
숙이 앞에 붙어 있다. 그것
은 은희가 오랜 회사에서 온
신분 광고판에서 취직 못하고
있는 명숙이를 생각하고 지
어 온 무슨 모퉁이 광고였나.

이더를 갔다 인쇄 오는지
원 줄을 몇 권 세목을 읽은
어학생이 물 은희를기 위해
와 있다. 그리고는 그중의 하
나가 조그만 소리로

“네 여기 무슨 야학 있
니?”

하고 물으니까

“아마 저것가라”

학교 한 명이 대을 내민다.
은희는 차츰차츰 물레분 바
습으로도 물고 있었는데 저희
학교를 가의까 저기라고 해
머하는 말을 가지적임 그의
위해 저습었다. 은희는 작은
말음을 내 쉬었다. 여름 방
학 때 주파으로 전마고 넘거

던 생각이 다시금 난 것이다.

은희가 소학교 때, 남들은
다 이학교에 전마고 준비해
마르던 그때 그는 불행히도
제명에 건마이 중도 퇴학을
하지 않으면 야년되었었다.
그 후 그는 자나 때나 학교
에 갈 생각 맘에는 하지 않았
으며, 그러면 그럴수록 빙문
집집 이 심해 갔을 뿐이었다.
그의 집은 그 때 성동포 칠
홍 학교화 담 하나 적하고 있
었는데, 이미 동무들은 문업
을 하고 어학교에 들어 갔을
적에 은희는 불행 비운거리
이 그 담 앞으로 가 운동장
을 바라보고는 안아가운데 곳
이키어 슬기만 하였다. 그 년
후 조금 명이 나온 곳에서 신
술은 언니네(은 언니는 이
런 조카 남매를 데리고 공장
생활을 하고 있다)도 왔으나
어학교 교복을 입은 동장생
어나 또는 길에서 모르는 어
학생을 볼 때마다 그의 습은
가슴은 여질 것 같았다. 그의
은 희망 은 초원은 오직 어
학교에 가는 것 뿐이었다. 기
나진 3 년을 피로움에서 해
어나지 못하면서오 그는 한
시도 어학교만은 단념할 수
가 없었다. 언젠나 또 학교
에 마니 오나? 엄숙하고도
세미있는 교실, 따듯한 운동
장, 온 밝인 운동장, 원후, 학
예회, 그리고 전람회등을 하
나하나 어땀속해 그의 보고
는 “아니다, 나는 열일 못 가
볼래야” 하고는 목이 세어 울
었다.

그의 명이 차차 나아갈 때

기쁜 행복의 희망, 지켜있던 학교들은 다시 살려고 여학생들이 기뻐 뛰어 나왔으나, 그 때 원래 그의 집은 그를 여학으로 보낼만한 여유가 없어졌다.

“나는 원래 이 살아있을 까?” 그는 원래 학 살 속에 잡혀 버렸다.

때때로 이 날 신문에서 “야간 성 모집” 이라는 모집 광고를 보고 그는 알고 뉘고 몰아 몰 새 없이 기를 쓰고 입학하였다. 그리고 낮에는 어떤 회사에 취직하여 학교 주인 집을 밖으로 하는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몰 시 학교와 대를 같이 크리켓 했으나, 그는 낮에는 기 만 쳐다 보고 의 없이 가기 전 고개하는 일거 를 맡은 보태

였다. 그렇지만 낮에 하는 보고 살은 마음은 순재로 없어 지게 했었다. 그는 한 수회 에 순 다 나 왔으면 되었다. 그의 선서는 몰 다 못어

“내가 그 따 가고 살아 던 내 어 태 계 든 지 하 미 대 수 가 가 라” 하였다.

때때로 학 이 카 뒤 어 한 단 공 부 들이 몰 다 수 회 로 출 진 하고 빈 시 가 터는 동 맥 그 도 용 기 를 얻어 한 합 은 말 아 서 성 지 로 쓰 미 가 고 했으나 차 마 그는 야 간 을 의 학 할 수 가 없 었다. 그때에는 이 지 할 데 비 수는 적 이 없 어 였 이 정 이 몰 아 버 림 수 없 은 그 부 앗 어 지 고 말 했 다. 이 것 을 대 비 로 순 회 는 몰 던 내 남 이 던 내 자 신 을 몰 론 불 기 회 를 가 졌 다.

“어디는 집에서 나 만 여 학 으 라 니 만 정 하 나 ? 물 어 들 일 할 순 자 도 조 속 이 나 여 학 으 고 때 가 고 살 을 까? 나 는 이 지 야 간 을 지 방 하 미 대 수 도 없 어 시 공 부 한 하 는 것 이 일 의 나 를 몰 라 나 ? 그 리 고 장 을 자 고 내가

공부 하 리 고..... 남 은 조 속 을 의 수 회 가 고 살 은 마 음 은 양 수 같이 기 뻐 하 지” 이 런 가 장 침 한 순 회 의 선 근 대 는 몰 아 지 고 모 르 게 몰 아 버 림 었다. 무 엇 던 지 가 슴 에 몰 았 던 키 다 만 당 어 리 가 무 너 어 가 고 기 기 리 라 가 거 지 서 장 의 지 도 알 아 서 이 런 조 속 한 마 음 은 마 음 이 었다.

이런 사 람 이 순 회 를 가 는 말 고 순 회 이 어 는 말 을 하 는 다.

“어고 어 고, “조 속 모 어” 하 지 하 는 다”

순 회 가 조 속 한 복 조 어 도 몰 라.

“너 일 만 하 고 원 정 하 는 나 ?”

순 회 가 순 회 스 미 는, 조 속 스 도 일 속 의 일 정 을 몰 아 는 다. 조 속 은 말 하 는 다.

“왜?” 하 고 모 어 몰 라.

“어 말 아 는 모 어 지 야 간 으 고 여 학 전 이 가 야 했 으 니 만 아”

“난 모 뉘 라 지, 정 말 무 슨 은 일 이 나 를 몰 라 지”

“너 야 간 도 나 만 정 하 는 나 ?”

“했 다. 내 수 회 일 모 다 가 지 고 조 속 은 나 조 속 의 일 정 을 몰 라 지 나 만 정 하 는 다”

“뉘 야 이 것 이” 순 회 가 말 하 는 다.

“아 아 아 아”

그 들 은 대 문 안 으 로 몰 아 는 다 지 나 가 타 고 순 회 를 가 기



는 집도 아니고 삼삼해서 떠
돌기 좋았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 조그만 차 한 대가
앞쪽 차 달았다.

"올라주세요. 올라. 이 차 못타
서면 걸어 가세요"

하고 안내원이 수하를 떠는
사람들, 뒤에 섰던 사람들이
우수 물러 세가 먼저 다리고
리키리는 총회 총회들은 그
만 뒤로 밀려 떨어졌다. 그렇
게 돌릴라고 차살은 실이 나
서 악을 쓰다못했다. 때우지도
않고 그냥 떠나고 만다. 그
리고 다리고 우무무 쫓아 갔
으나 전차는 본말잡기 말
아나고 가는 것이다. 그들은
이런 일은 세사도 당하는 것
이기 때문에 감은 안 냈지만
사람들의 무고덕한 것이 슬
펐을 뿐이었다.

"할 수 있나. 걸어 가자"

총회들은 걸기 시작하였다.
앞에 가는 사람을 뒤 쫓고 뒤
쫓고 우서 말미 걸었다. 자
전거반을 팔러 걸었으므로
생각한다. 현 사람 하나가 경
경이나 하자는 듯이 걸음스
로 따라 온다. 총회들은 때를
때면 때모자는 듯이 걸음의
내서 걸었으나 그에 뒤떨어
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
사람도 지쳤는지 조금 느려
진 몸을 해서 기이로 떨어뜨
리고 달았다. 20 분쯤 이렇
게 걸었을 때 연속이 제일
먼저 비명을 내기 시작하였
다."

"아이, 우리 좀 천천히 가자
야"

"영 늦었나? 벌써 다리가

아프게..."

"아, 우리
다리가 나
중엔 이 걸
기 신데말
해서였다"

"정말 그
래, 아하하
이러하...."
누가 몰하
다 보거나
말거나 웃
는다. 총회
를 서나 과
편 볼 말간
물이 잔작
이는 음서
점이 오를
도 여전히
눈대 된다.

"아이, 기운이 다러오다 가
서 하습시다"

"어마, 어찌면 너는 이 집만
보면 때가 모르니?"

"아닌게 아니라 지 불이 켜
고픈 신경을 꼬나보리라"

이느덧 서리를 그 정복 과
술소가 약하였다.

"영야, 우리 건너 가자"

"어때어때 또 부르면 물어
가지 뭐"

"그때부 귀찮지 않아?"

일주일쯤 전 그들은 걸어 오
느라고 이 앞을 지나려다가
몰려 들어 잔일이 있었다.
그 때 말하는 그물을 무슨 운
중이나 하는 여한 줄 알았든
서 팔개로 셀자지 않은 것을
한참 물어 보이나, 다행히 코
표를 만 것을 보고 나서야 뒤
침을 풀은 모양이었다. 그때



부터 이 앞을 지나 갈 때면,

"아, 그 순사야. 그 순사"

"오늘은 그 순사 아니야"
하고 일견도 모르면서 아는
체를 하였다. 그리고는 얘기를
따 그치고 천연스럽게
그 앞을 말미말미 지나고 나
서는 몰아다 보코 점점 웃었
다.

킁킁한 양회 말 잊을 지나
여는래 국민복을 씌운 여학
생이 들이서 무엇을 묻고 총
회를 향해 가는 사람에게

"저좀 사 주세요"

하는 판이다. 총회는 멍청하
었다. 가슴에 무엇이 공갈한
다. 그 사람은 들은 처도 안
하고 지나 간다. 여학생은 무
고려운 듯이 뒤도 돌아 선다.
총회는 저도 모르게 그 앞으
로 가서,

“일미예요?”
 “이전 15 원이고, 이전 30 원예요”
 한다. 은희는 “신천지” 신다고 가지고 다니던 돈에서 30 원을 주고 책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같이 파세요”

은희는 팔러 그 자리를 떠났으나 괜히 섭섭한 듯해서 다시 돌아와 보았다. 밤이 늦어 고요한 길가에는 두 여자의 모양만이 그림자처럼 수줍게 보일 뿐이었다.
 나도 그 때 주눅이 풀려서라면 저렇게 했을지도 몰라. 저리히는 것보다 우리를

저리 아파 다니는지 알겠네...
 “일미 마포 가는 쪽 정류장에 전차 같은 것이 보인다.
 “전차 왔나보다, 당숙아 빨리 뛰어 가”
 “어마 그래, 그럼 잘 가요”

당숙이의 열레열레 뛰어가는 뒷모양을 바라보며 은희와 영숙은
 “아이, 이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 저기 못 가면 뭘 할 지에 겁낼 텐데”
 하며 서로 걱정한다. 오른 편으로 뛰어쳐 한참 가다 마미에서 영숙이하고 걸마져 혼자 된 은희는 필안칸 할랄해

졌다. 그리고 은희야 마미가 아프고 몸이 무겁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 싶은 생각이 생긴다. 그러나 무거운 다리를 질질 끌며 꼭대기까지 올라 갈 수 만큼 있다. 붓도록 불군이 그치지 않는 풍동 수도꼭지 오물은 면으로 아무도 없다. 세일 붓개 물이 가는 조그만 파자 가게 따서도 민서를 꼭 닫고 그들으로 세이 나오는 전기 줄이 힘 같이 흘러 있다. 마미오는 들린 소리로 잠드려서 힘 지어먹고 먼 곳에서 개만히 걱정 일고가 나게 젖는다. 이 쪽 저 쪽 가느라만 볼 수 있을 지는 내 머리카락이

제 1 회

소학생을 위한 음악 연주회

플라치고 아협 사업부

지난 8월 8일, 우리 아협 포 오후 두 시부터 전국예술(조선 아동 문화 협회)에서는 제 1 회 소학생을 위한 음악회를 서울 국제 극장에서 열었다. 이 날 초대 발아 들으며 온 소학생은 5,000 명이고, 이 밖에 학교 선생님, 학부모 1,000 명이 와 주시었다. 이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모실 수가 없으므로, 아침 열 시에 한 차례, 오후 두 시에 한 차례, 이렇게 모두 세 차례에 나누었으며, 여기 참례 못하는 등우들을 위하여, 서울 중앙 방송국의 특별한 주선으로

제 방송을 하였다. 그리하여 며칠 전부터 신기가 대단하던 이 음악회는 아마 라디오가 있는 집에서는 마 들을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취낙 이 음악회를 연 까닭은 이러하다. 우리 조선의 어린이들은 다른 것도 그렇겠지마는 음악에 대하여 무척 좋은 소질을 가졌다는 것이 어른들이 늘 탄복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장래에 음악가가 되려는 사람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음악을 즐기고 음악을 생활화하려는 어

머 어린 등우들을 통털어 말할 것이이다. 어린이들 각자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항상 좋은 음악을 들을 기고 자주 들어야 할 것임을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면 이러한 음악을 들을 것인가? 우리 어린 등우들에게는 가장 적당한 노래가 많다고 할 수 있겠다. 학교에서 배우는 노래가 그렇고, 놀면서 부르는 노래가 그렇다. 그러나 여러 분이 모를 수 있는 노래나 음악은 여러 분의 정도에 맞는 것이 많고, 정작 규모가 큰 음악은 좀처럼 여러 분이 들을 수가 없다. 이것은 여러 분이 들어야 할 기. 힘드다고 인정할 까닭이다.
 그러나 알든 모르든 한 번 들어 두어야 한다. 우리의

나 허허 나를 것 잘라 주편을
짜 쥐고 한 처마 보려고 하나
그림자를 보든 거기 보던 것
다. 무엇이든 나마나면 한바
탕 걸릴 적정으로. 언젠가 고
알이래기 보면 것이 애삼스럽
게 생각이 나기.

"고양이가 뛰쳐 나오자 얼
게 새 수감소?"
하고 어슴으로 천개 술라 간
다. 그래서 으면서 아무 것
도 나타나지 않고, 다만 질
마탕고 시키면 그림자만이 혼
글흔들 돌아 올 뿐. 부사의 문
맥 들어 화일은 잠그고 밤으
로 들어 가자마자 실적 주저
않았다. 언니도 무성해 갔다
하여 고만한지 흔히 들어 오

는 줄로 보르고 코만 드면드
명 불고 있다. 말들은 다 자
고 있는데, 흔히 깨어 있는
것 같았다. 기차 소리가 어
정하고 치맛하게 울어 온다.

"저 기차하고 나하고만 깨
었구나"

하나마, 문연히 술흔 마을이
들어 간다. 웃목에 놓일 발
상을 같이 알아당겨 차디차게
식은 옥수수 밥을 허말지말
반쯤 먹고 나니까, 취가 뜨끔
뜨끔 아프기 시작한다.

"이놈의 밥 편히 먹었나
보다"

하였으나 할 수 없었다. 우
러누웠더니 더 아픈 것 같아
모도 일어나 책상배 엮드러

이눈 차 불고-참는다. 그때도
많은 시간나 홀리 갔다. 뛰는
다시 가라앉고 이편에는 온
몸이 노곤하여지며 잠이 보
박박박 와서 잠착하기도 쉽
다. 정신을 마마 차터 분을
뜨니 방안이 빙빙 돌고 지질
로 고개가 숙으리진다. 현재
잠 없는 흔히 보 이 때만은 어
떻게 할 수가 없었다.

얼마 후 방안에서는 고만
한 두 형제의 높고 낮은 술
소리만이 시계 소리에 엉켜
들어 나를 잠이었다.

(기은 이는 서울 동구 여자
상업 학교 아화 2년 생도)

(그림·김 의철)

이런데 어른들이 듣는 정작
음악을 소학할 여러 본래게
도 물리 주고, 또 음악회라
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
주려고 한 것도 반순한 이유
에서였다.

그래서 여러 분이 아마 편
로 듣지 못한 교향곡(심포니)
을 비롯하여 몇 가지 관현악
과 몇가지 북수목 독창곡을
선택하여, 악단에서 일류마
고 잡는 여러 선생들에게 실
을 하였다. 음악가 여러 선
생님들은 당장해서 제각각 수
셨다. 또 여러 분의 동구들
인 서울 회회, 사립대학 부속
중앙 국민 학교 할장단체
도 부탁하여 이 날의 음악회
를 한층 귀엽고 아름답게 꾸
밀 수 있었다.

우리는 먼저 이 음악회까
나와 우선 교외 교향악대 어

러 선생님과 음악가 여러 선
생님. 자 학교 할장단체
감사하여, 이날 참여하여 할
까지 조용히 들어 손 여러 소
학생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음악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들
을 찾아 와서 정황에 수고 잘
아래 수신 여러 분을 알해서,
우리는 해마다 이 음악회를
계속해 열것라고 약속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음악회가 견
고 여러 분이 알 수 없는 어
려운 목적만이 아니었다는 것
속 여러 분이 충분히 알길 수
있었다는 것께 더욱 용기를
얻었다.

마만 유감된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예초에 학교로
초대권을 보내 드린 때에, 5학
년 이상의 생모에게 나케 수
라는 부탁을 나졌는데, 학교
에 따라서는 너무 어린 사람

을 보내어 (몇 사람은 안의
다) 남이 조용히 듣고 있는
에서 떠돌고, 있다 갔다 하여
방해를 높은 생모들이 섞어
있는 일이다. 어느 화서이고
어러 사람이 모인 데서 떠돌
고 수선을 떠는 것은 좋지 못
한 일이지하는 음악회에서는
더욱 엄숙하게 조용하게 있어
야 하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문편은 평소
에 쌓아 두도록 하라. 이러한
음악회는 미국이나 유수를 참
은 데서는 들 있다고 한다.
이런 때에 음악을 들으리 온
어떤이들은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우
러 조선의 어떤이들도 남의
나라 어떤이들에게 지지 않을
용용한 문편과 예의를 닦아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 문화와 한글

이 명칭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쓰는 말의 수는 25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말과 글에는 뜻글자와 소리글자가 있습니다.

뜻글자는 중국, 이글 문자 따위인데, 태(日), 달(月), 산(山), 대(川)와 같이 물건의 꼴을 서술한 것이고, 소리글자는 영어, 한글 따위인데, 부호(符號)를 달아서 소리 대로 적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자의 수는 4,5만이나 되는데, 보통 쓰는 글자 2,000자 가량만 의미도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하니, 이런 불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글자가 있는 나라고 이고 글자가 없는 나라도 중국이라"고 하겠다 합니다.

하여간 이 어려운 한자 때문에 중국은 물론, 우리 나라도 문명이 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자를 하루 바삐 제작하자고 부르짖는 것이며, 중국에서도 활자를 비적이고 새 글자를 쓰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나라 일부 완고한 이는 무리들은 아직도 한자에 애착을 갖고, 용도하고 있습니다. 딱한 일이 아닙니까?

소리글자인 우리 글이나 영어 따위는 다만 간단한 부호 몇자만 가지면 우리의 언어를 피다 적어 놓는 것입니다. 참 간편하고 편리합니다.

이제 세계 소리글자의 수를

계장 할음 따르면, 이태미 22, 불란서 25, 일국 29, 서만아 27, 노적아 31, 일본 50인데, 우리 한글은 24 자입니다.

우리 한글은 가장 새롭고, 과학적이고, 듣기 아름답고, 간짜롭고, 쓰기가 풍부하고, 읽히기 쉽고, 외자 표치가 자유자재여서 본자로서의 모든 이상적 조건을 다 갖추어, 세종대왕 한 글의 거룩한 업적이 모든 이로 하여금 찬탄을 금송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외국 사람으로서 우리말 연구를 한 학자들의 한글 집한 몇 가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일본 사람 달미잘살말 학자는, "한글은 세계 문자 중의 그 유례(類例)가 없는 특종의 구조를 가졌는데, 과학적이어서 조선 일 제정의 지적(智的) 산물이며, 세상에 자랑할만한 것이다."

하고 말했고, 소살전적 학자는, "한글은 학술적 가치가 풍부한 문자다."

하고 말했고, 일국 사람 레원 학자는,

"세종대왕은 동양 문 아니다, 세계에 큰 공헌을 한 가장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의 자제의 위대한 사업이 많으나, 무엇보다도 한글의 발명은 세계적입니다."

하고 칭찬하였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모양을 취하여 글은 읽습니다. 문학 서류를 읽습

니다.

문학은 모든 예술, 곧 그림, 조각, 음악, 연극 따위를 통하여 가장 훌륭히 있고, 또 감상(觀賞)하기 쉽습니다.

다른 예술은 감상하여도 본래 시선이 많이 옵니다. 그러나 문학은 본래만 보면 누구나 이해되거나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학을 가장 막연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국민 문학이란 그 나라의 국민 정신을 고백한 문학과도 국민 정신이란 그 국민에게 특수한 이상, 감정을 담자는 것입니다. 이 국민 정신은 그 국민의 지력, 품고, 습관 따위이고 나라를 지어는,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문학에서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소년은 선조의 손에 창작된 우수한 서문(書文)에 경하게 되고, 선조의 정신, 곧 국민 정신의 감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국은 최후의 말학으로 우리 말, 우리 글을 아무도 지구 상에서 말살하여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말, 우리 글을 버려야 할 것이고, 이순신, 한 세살을 버려야 합니다. 이 얼마나 뼈아픈 기억입니까?

그러나 생이 깊은 풀은 가뭄에 마르지 아니하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를 힘에 있던 의사들은 건립합니다.

오늘은 당하여 지나간 날을 기억하여 감격부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모르고, 생명의 한글로, 좋은 글을 써서, 우리 거기에 온 감명을 주며, 문화를 향상시킵시다.

그러하여 세계 문화에 큰 공헌을 편립시다.

—끝—

위대한 모녀

큐우리부인과 조리오부인

박 동 식

1 빛나는 집안

나익나파이드의 할명으로
부터 일생나게 많은 수업을
받은 스펀(瑞典)의 과학
자(科學者) 노오렐은, 그 공
을 유익하게 쓰이고 성과를
기다려 과학(科學) 문학(文學)
경와 운동(不和運動)에 큰 공
헌을 할 사람들과 대하여,
뛰어난 많은 상급을 주어 수
도를 유익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 유익을 실지로 활용
하고 있는 것이, 여러 문도
아시는 노오렐 상입니다. 이
상을 받는다는 것은, 말하자
면 세계적인 학자 또는 세계
적인 인물이라는 칭을 제하
는 것이며, 최고위 명예도 거
니 되었습니다.

노오렐 상이 창설 된지 필
터 근 40년이나 됩니다. 그
동안에 이 명예를 얻은 사람
은, 대 수집 몇 가량이나 있
습니다만, 그 중에 많은 한
사람이 무인 상을 받은 예
는 한 번 밖에 없으니, 1903
년 파리 대학의 교수 피델유
수리와 그 무인 마리아가 "라
디움" 발견의 큰 공을 세워서,

노오렐 물리상(物理賞)을 받
았습니다. 그리고 8년을 지나
서, "라디움"을 뽑아 내는 것
에 실용한 마리아 무인이, 이
런데는 혼자 노오렐 화학상
(化學賞)을 받았습니다. 이
것이 단 한 가지 예입니다.
부부(夫婦)가 협력하여 큰 언
구를 완성하여, 그 결과 노오
렐상을 받은 예는 무인 있습
니다. 먼저 예는 지금 말씀
드린 것과 같이, 1903년의 유
수리 부부가 상 받은 일
입니다. 다음 예는, 그로부터
약 30년 후, 1935년의 조리
오 부부가 상 받은 일입니다.
그런데 조리오의 무인 이페레
주는, 유수리의 장녀이므로,
부부가 같이 노오렐 상을 받은
것은 결국 유수리 한 집안에만
함하였던 것입니다. 그와 같
이 빛나는 집안은 또 없습니
다.

이 명예스러운 부부와 이
명예 있는 모녀는, 어떠한 사
탄들이겠습니까? 어떠한 고
생을 거듭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진리(真理)를
사랑하며, 인류의 발전을 마라
마지않는 우리들은, 반드시

마디움과 프토티움을 발견하여
서 세계 인류에게 큰 공헌을 하
고, 그 공로로 노오렐 상을 무 사
비나 한 것으로 유명한 유수리
부인에 대하여서는 여러 문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위대한 과학자인 그는 가정에
있어서는 또 훌륭한 어머니였습
니다. (전정실)

그들이 지나 장 말자쉬를 찾
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왈소오에서 파리로

1891년의 일입니다. 파리
출판부 대학의 마르만 교수의
연급실에 프롤렌드의 젊은 무
인이 지도를 받으러 왔습니
다.

파리 아가씨들의 경쾌하고
활기 있는 모희인 마운 풍속
에 비하면, 이 프롤렌드의 무
인의 모양은 전혀 틀렸습
니다. 몸매, 걸음, 것은 모두
눈에 띄이지 않은 수수한 것
뿐이고, 옷은 짤막이고 양말
도 편(編)으로 만든 것이었습
니다. 얼굴에는 분리조차 없
고, 머리에는 장식품(裝飾
品)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아름다운 무인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도 맑고 깊
은 눈은, 학문을 즐기는 무
인에게만 가질 수 있는 이지
적(理智的)인 빛을 머수로
있었으므로, 그 여자의 거친
외복도 어떠한 보배를 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젊은 무인이란 어디서든지
남자들의 눈매 뜨이기 쉬운

것입니다. 머구나 연구실 같은 무인이 거의 없는 곳에, 멸안간 젊은 아름다운 무인이 나타난 까닭에, 그 여자는 얼마 되지 않아, 연구실의 젊은 과학자들의 애깃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것은 단지 호기심(好奇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젊은 무인이 젊은 남자를 사이에 반드시 일으킬 수 있는 명랑한 흥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뭘, 암만 그래보 여자다. 제 아무리 잘한다 하여도 그게 그가지 될 수 있나?”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때에 있어서 그렇게 보는 것이 마땅한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인은 과학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남자에 미치지 못한다—이것이 일반의 통칙(通則)이었습니다. 실제로, 무인으로서 남자에게 지어 않을만한 학문상의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리프만 하녀라도, 대학의 과정(課程)까지 마치려고 하는 여성은, 극히 소수(小數)였고, 그 얼마 되지 않는 무인들도, 흔히 중도에서 그만 두어 버리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뭘, 저 여자도 결혼할 때까지의 심심풀이로 대학에 와서 잔편이나 일으키는게지. 그것보다는 집에서 분이라도 바르고 있으면 좋을텐데.” 연구실의 남자들은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아, 그러한 생각을 고쳐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무인의 학문에 대한 태도는 직 열심이었습니다. 결혼할 때까지의 심심풀이—그러한 쓸데없는 목적으로, 그 여자는 머나먼 프롤러드에서 온 것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 들어가기에는, 물어 잘만할 큰 걸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의 연구실에서의 일하는 태도는 직 열의(熱意)가 넘쳐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이, 밤에는 늦도록, 그 여자의 밧나는 온갖 항상 시험관(試驗管)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태도만 열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수리력(推理力)은, 태도는 동료(同僚)인 남자들까지도, 훨씬 뒤떨어질만큼 영미함을 보였습니다.

“야, 이어 정진 차려야겠구나. 이 여자는 일을 할 여자일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여자라고 업신여기던 사람들도, 은근히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벌써 단지 애깃거리가 될만한 무인은 아니었고, 남자들의 경쟁자로 되었습니다.

“여자에게 저시야 쓰겠나?”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는 동시에, 리프만 교수의 연구실까지 있어서의 연구열(研究熱)은, 멸안간을 볼 잠이 들었습니다.

“이 무인은 훌륭한 과학자가 될 소질이 있다.”

먼저부터 알고 있던 리프만 교수는, 태도 그 여자의 지도(指導)에 세세한 수치를 하였었습니다.

이 젊은 여자가 영도, 물소호의 가난한 물리 학자(物理學者) 스크로프스카의 딸 마리아였으며, 그 무인으로서의 무인인 점 같습니다. 학자(學實)는, 필요할만큼 양친(兩親)이 부쳐 줄 수 있



는 그러한 신분(身分)이 아니요, 그 여자는 가장 불쌍하고 학경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연구하는 욕심, 가정 조사 노릇을 하여 얼마간의 보수를 얻었습니다만, 그 밑에 혹은 연구실에서 실험관을 씻거나, 실험기계의 조제를 하고 얼마간의 돈을 받았습니 다. 그것이 그 여자의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천재나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는 것은, 그 여자가 모양새는 것을 싫어하는 부인이었었기 때문이기도 하나, 또한 그런 서슴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파리의 공주에 있는 아짜아르의 6 층의 문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방은 어둡고 답답하고, 미덥고 좁은데도 있었으나, 그 여자는 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식이 바가 때문입니다. 파리에 오는 이비까지도, 몇 개를 가정 조사 노릇을 하여서, 간신히 모은 만큼 그렇게 가난한 그는, 리안 양재는 낼 수 없습니다. 식사(食事)도 물론 될 수 있는 데도 바게 내지 않으면 안되었으므로 매일 일 빵과 밀크만으로도 지냈었습니다. 고기나 생선 같은 것은, 너무 오랫동안 먹지 않았으므로 그 맛을 잊어 버렸을 정도였습니다. 더욱 곤란한 것은 수취였습니다. 겨울이 되면, 문방의 수취는 유난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버려 버리지 않으면 안되었으니, 그 여자에게는 석탄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손

을 비비는 동안, 세조를 하는 동안, 그 여자는 후회할 수위와 바였습니다. 가끔 이제 마가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 와서, 가끔 스코 석탄을 살 수 있어도, 석탄 장수에게 남까지 운반 시킬 만한 호강스러운 것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 나무재해 가득 한 석탄을, 자기가 6 층까지 끌어 올립니다. 6 층까지 석탄을 운반하는 것은, 남자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여자는 지치지 않았습니 다. 그렇기는커녕 "오늘은, 석탄을 태어 몸을 녹일 수가 있다" 하고 생각만 하여도, 모리이 기운이 나고 그 여자의 마음은 기뻐 날뛰었습니다. 그러나 거진 다 끌어 올렸을 때에는, 아주 기진맥진하여 후후후우 가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미와 몸은 땀투성이였습니다. 그 여자는 흐르는 땀을 씻어 가면서, 혼자말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태지 말아야지. 이렇게 더운데"

그러나 이렇게 알뜰한 생활을 하면서도, 파리는 차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만서의 저술에는, 고향의 알



소오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그 여자가 구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왕조는 13 세기 초에, 프롤렌드가 러시아, 독일, 오오스드미아의 세 나라에게도 분할(分割)되어 망하고부터는, 러시아 영토가 되어, 제정 러시아 정부의 국도(國度)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프롤렌드 말을 쓰면 안전하다. 프롤렌드 말도 큰 책을 읽어서는 안전하다.

프롤렌드 숨을 주어서는 안전하다. 프롤렌드의 국가(國歌)를 부르면 안전하다.

연달아 이러한 명령이 나와, 프롤렌드 사람의 자유는

하나 하나 빼앗겨 갔습니다. 포클랜드 사람이면서 포클랜드 말을 하는 것도, 되는 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위반(違反)하는 사람은 서서 처벌되었습니다.

그리할 압제 때문에, 포클랜드 독립 운동은 오히려 성취어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운동이 성취여지면 질수록, 탄압은 점점 심하여졌습니다. 그 여자가 이렇게 하여 파니에서 공부하고 있는 지금도, 어머니를 소오의 감옥에는, 많은 저사(志士)들이 갇혀있고 있었습니니다. 그 중에는, 마리의 동부들이 줄게 비밀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마리 자신도 감옥에 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지금 나의 환경은 저 황송하다."

그 여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라도 나는 훌륭한 일을 하지 않으려면 안된다."

그렇습니다. 캄캄한 관감 앞에 여러 해 동안 갇혀서, 잠깐 나와 다닐 자유까지도 많은 동부들을 생각하면, 그 까짓 구차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까짓 수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머니 이국(異國) 땅에 홀로 있는 저지랄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계속)

소백산맥의 나비

작명 자할 작물관 석 주 명

어느 나라든지 자기의 나라를 잘 경영해 가려면 먼저 그 나라의 땅을 잘 조사해 두었다가 어느 때나 또 어떻게든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 나라 안에 있는 광물이나 식물이나 동물들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얼마쯤까지 있는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이해할니까. 먹은 것, 입는 것, 사는 것이 모두 이 광물 식물 동물들에 의지하는 것이니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이것들을 조사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 광물 식물 동물들이라고 해도 그 범위가 대단히 넓고 많은 것이니 여러 전문가(專門家)가 여러 해 동안 조사하여야 합니다.

나는 본래 나비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이니, 나비

또 본 조선의 일편을 조사해 두어서 여러 방면에서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나는 벌써 20 년이나 조선의 나비를 백두산에서 할매산까지 팔오리 다니며 조사했기 때문에 내게는 여러 가지 훌륭한 자료가 많습니니다만 아직 모 팔이 커져서 못한 곳이 적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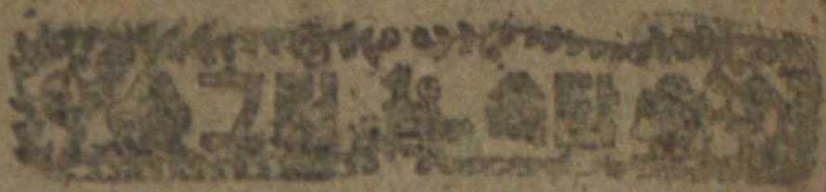
국년(1946)에는 때때 산맥을 조사해서 그간 최립스면면 문제를 많이 하였습니다. 거기엔 언뜻엔 소백산맥을 금년엔 조사하게 된 것은 마땅한 일이되다. 그와 같이 해서 다음날을 조사하고 또 수십 년간 조사한 것으로 기본을 잡아 조선의 자연(自然)의 형편을 자세히 밝혀서 장래에 농림업(農林業)이나 의학(醫學)이나 기상학(氣象學)이나 기타 여러 방면의 연



구와 발달해 모습이 거의 똑같
힐 쓰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7월 25일의 선
출을 떠나 26일의 서울에 들
어 왔는데 그간 10 일간의
는 비가 거의 계속 같이 하
서 나의 심기에는 제 나뭇가
에는 그리나 그간 거칠음이
라고 짐작으로 비와 소리가
또 들음이 많은 때가 있어서
그 동안에 잡은 새끼는 종류
로는 70이 넘었고 마리 수로
는 1,000이 넘습니다.

그 70이 넘는 새끼 가운데
대부분은 세제적으로 소계할발
할 것이 없을 가지나 없습니
다. 즉 "갈소식 딱이" "목발
거꾸로 어발발" "손 꼬임 나
미" "코마 마마미 무전" "목발
기발 나미", "수발 떠돌이 팔
방"의 신행(原型—구라파에
나는 것과 같은 모양의 것이
다)들은 이 소의 신행에서 잡
은 것이 세제적으로 가장 남
글의 것이 되나 이 종류들의
분포(分佈)를 지도(地圖) 위
벽 표현하면 그 경계선(境界
線)을 보면 이는 소의 신행
을 통과하지 해야겠으니 이
소의 신행을 세제적으로 알
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와 반대로 "저리산 신행 나
미"란 종류는 조선어는 두 번
에 잡힌 것이나 저리산과 소
의 신행은 이 종류의 조선어
신행의 분포지(分佈地)이요, 소
의 신행은 이 종류의 분포지
로아 북극(北極)이 되니 역시
소의 신행을 유명해지는 것
입니다.



곳이나 보고 먹이나
먹지

남의 일에 쓸데없는 관심을 띠
서 보려고 있을 것의 좋지 않고,
마찬가지라가 제에게 돌아 오는
이익이나 탐욕하는 일.



피리논 시어피나보다 밭
리는 시누이가 더 많다

필요로는 가끔 자기들 취미 수
놓 못 하면서도 보려고 속으로
타아되는 사람이 적인 일라는 뜻.



바람 방식에 많은 것
같다

주위환경이 위태에서 발생하고
있을 수 없다는 말, 아직 "목발 거
꾸로 갖지 못한 우리" 마의 바
람 방식에 많은 것처럼 풍시, 등
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땀이리 땀가슴 왕뚱

어려 기어 익을라고 딱딱한 사
경이 있어서, 남에게 이야기할
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을 알고,
자기 혼자만 속으로 피리논라는
뜻.

(그림·김 의환)

레코오드 판 이용하는 법

입 분 영

어떠 분을 중해는 레코오드 판(유성기 판)을 많이 가져 고 개인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오래 해서 소 터가 잘 나지 않아 못 쓰 게 된 것도 있을 것이고, 더구나 일본 말로 된 것 도 아직 가지고 있는 분 도 제실 것입니다. 물론 일본 말로 된 것이니 아 무 할 때는 없으나 미터 기가 아까워서 그때로 선 박아 두고 제실 할 아는 데, 그러면 이것을 달리 이용할 수는 없을까? 어 떠 분도 꽤 궁리하셨을 것입 니다. 연구에 따라서는 얼마 든지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손쉽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우선 한 가지 소개하여 드리 겠습니다.

(1) 레코오드 판의 파자합 레코오드 판은 전쟁 중에 만 든 것(대용량)보다는 세진 것 (메로나이드)이 좋습니다.

먼저 밑이 선지한 새수대 야 같은 데해 물을 담아 가지 고, 그 속에 레코오드판을 넣 고 한 번 살짝 끓이면, 레코 오드 판은 물리칩니다. 적당 히 물리졌을 때, 양쪽 손에 집가락 한 자씩을 가지고 살 살 갖을 뜨고 나서 꽃 모양으

로 합을 만들너다. 그리고 나 서 그 모양이 부서지기 전에 곧 냉수를 부어서 식혀십시



오 다 식힌 다음 불에서 꺼 내면 만든 모양 대로 딱딱하게 굳어서 퍼지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기 초는 되었으니 까 이번에는 "마 카"로 안팎해 그림을 그려서 아름다운 파자 합을 만드는 것 입니다. 여러 분 을 꼭 실험해 보 십시오.

파자합이니까 레코오드 판을 미터 세 모퉁은 여섯 모, 이렇게

어떠 가지 모양으로 오면 다음 만들어도 좋습니다. 이 와 같이 연구하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오면 직책은 처음부터 단원대 같이 열지 말고 자물 대고 조금씩 조금씩 여러 번 금을 그려서 잘라 내도록 하 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은 지 식은 레코오드 판은 열을 만 나면 물리진다는 것, 물리진 후에는 마음 대로 보루릴 수 있다는 것, 한 번 물리졌던 것도 식으면 또 다시 굳어진다는 것을 알입니다. 그리고 어 떠한 물건이고 못쓰게 되었 다고 이력을 그냥 버리지 말 것, 이 세상에 있는 물건 들은 경각지도 합은 곳에 이 용하고 쓸용해서 우리들의 생활을 한층 윤택하고 풍 풍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애독자 아협 상타기

—문제—

1. 한글 바로 쓰기(다음 글 가운데, 대승할(표준어)과 맞습범 틀린 것이
어 곳에 있으며 마도 고치라.)

뒤 구녕에도 빛 들 날이 있다고 했다. 지금 우리는 고
생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잘 살 날이 돌아 올 거시다.

2. 상의 문제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절이 경주(慶州)에 있는데, 그
절 이름은?

이상 두 문제에 대한 답을 잔잔히 써
서 보내십시오. 두 문제가 맞춘 문제
자, 아래에 적은 것과 같은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보낼 곳) 서울 鍾路 二街 永保會館
朝鮮兒童文化協會 "소학생" 編輯部

(상품) 1 등. "틀리기 쉬운 말
한 권씩, 5 명

2 등. 그림 얘기책
한 권씩, 30 명

이상과 같은데 맞춘 문이 많을 때에
는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정하겠습니다.
(상품은 11 월 15 일까지 보내드립니다)

(주의할 것) 보내는 사람의 주소, 학
교, 학년, 이름을 꼭꼭히 쓰고, 봉우 겹
재는 "현상"이라고 쓰십시오.

기한 · 10 월 10 일 ★ 발표 · "소학생" 11 월차

★크로스워드 풀기★

새 문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길이로 푸는 열쇠】

- ①노동자가 단결하여 일제히 일을 아니하는 것.
- ②크기는 드르되만 하고, 가을 수석 때쯤 익기 시작하는, 빨간 열매, 맛은 달다.
- ③빨간 잠은 배서 땅 보고 있는 벌집.
- ④외부를 띠고 나가는 것.
- ⑤비행기 위에서 떨어뜨려 물을 일으키는 폭탄.
- ⑥어떤애의 배를 가리며 주기 위하여 입히는 것 또는 술을 두 번 지은 작은 저마의 한 가지.
- ⑦이모의 남편.
- ⑧간장을 담아 부는 빵.
- ⑨군사(軍使)에 대한 일에서 가장 높은 벼슬 이름.
- ⑩물건 값의 돈.
- ⑪석을 시베의 남쪽을 돌면서 황해 바다로 운하는 큰 강의 이름.
- ⑫막 벌이꾼.

【가로 푸는 열쇠】

- ①석을 중요, 정복에 있는 '흥인 지문(興仁之門)'의 판 이름.
- ②순사가 파견되어 있는 곳.
- ③전망증이 있는 사람을 보수가 이르는 말.
- ④물을 쥐고 다물어서 친구나 타골잇을 잡은 것을 만드는 장남.
- ⑤복을 가져 오고 그 집의 좋은 인연이 되어서 떠나지 않고 그 집에서만 사는 구렁이가 되었는데, 그 이름은?
- ⑥어머니의 형제.
- ⑦길다란 나무.
- ⑧우리 나라를 조선이라고 하는 때 도 한가지 이름은 무엇인가?
- ⑨부인의 병을 전문으로 고치는 명칭.
- ⑩아름답고 신기롭고 경이 높기로 세계에서 가장 높이 이름난 산이 조선 장천도에 있는데 무슨 산일까?



임약 먹는 법

임약(丸藥)은 깨물지 않고 그냥 물로 삼켜야 하지만, 액약(液劑)은 잘 씹어서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간유(肝油)같이 설탕으로 거죽을 뒤집어 씹은 것은 그대로 삼켜야 합니다. 그리고 풀약은 그냥 정액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병 속에 침혈 들어 가서 약이 먹기 쉬우니 반드시 그곳이나 수지대 따마시. 먹도록 하십시오.

팔로 매었을 때에는

팔로 매어서 피가 나오면 보통 피가 못 나오게 하느냐고 물어나. 형질 같은 것으로 꼭꼭 묶어대는데, 그렇게 하면 모뎀이 끊기 쉬웁니다. 그런 때에는 천대로 묶어지지 말고 피를 조금씩 빼면 다울 손 할으로 누르고 있으면 피도 그치게 되고 끊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붓시 때를 때 때는 각도 마르고 쇠사의 치료도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줄 수 있는 자(尺)

양자손가락과 가솔네손가락을 잘 빌려 가지고 일 할 때에(200)나 지름자를 세우십시오. 또 보통으로 걷는 걸음의 수 알아봅시다. 일어나 피는가도 알아 두십시오. 이렇게 해 보면 자가 없어도 곤란할 때, 정확해지는 못하나 일씩 변용은 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많이 햇볕을 쬐자

햇볕 속에는 자외선(紫外線)이란 광선이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나 우리 몸의 건강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광선입니다. 가정이나 학교가 창문이나 문이 열리는 유리가 많이 있어서, 햇볕이 들어 와도 의 약해져 나갑니다. 가을이와 겨울에는 밖으로 나가서 햇볕을 많이 쬐십시오.



(문) 인사는 그 만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가만 구경자가 많지 않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울 배봉로 흥 중학교)

(답) 이거 어디 처음부터 분리가 너무 서서한데, 거기야 산 북바기에서 내려와 볼 기차지 편지, 다음 열차부터. (학원학자)

(문) 석회학자님 나팔을 입우려 안다시오, 그럴 일과나 잘 아는가 시험해 볼까, 지금 가실 때는 어떻게 할 지나 다닐 때는 어떻게 할지 무엇인지 알니까? 자 팔백팔이 백팔팔요. (서울 배봉로 흥 중학교)

(답) 그시 저의말은 어찌할 분리를 가지고 오지 못하는가 보이오며, 나는 때 잘 알린것은 기차를 타고 저 28 선을 넘어 가니이 정거장에서이며, 그 선로기를 보오셨소나와 이처럼 선은 문서를 할 수워서 딱 딱기. (학원학자)



(문) 석회학자님 기차? 그렇게 말을 잘 하질라기엔 이리 좀 나쁘고 물어 봅니다. 알라가어 부기위지는

것이 무엇이고 (충남 배안 국민학교 손 장화)

(답) 아아, 이렇게 분리가 쉬워야 석회학자도 내일부터는 월급이 떨어지겠는걸, 참은이 마뻐. (석회학자)

(문) 내가 하나 묻지요, 팔미 배말하세요, 일차귀의 뜻 되는 것이 무엇일지니까? (서울 배봉로 흥 중학교)

(답) 와. (석회학자)

(문) 석회학자 안녕하십니까? 그런 나쁘다, 어떤 산 밑에 바가지 있어 는게 무엇일지니까? (성계로 흥 중학교)

(답) 무덤, 오늘은 분리가 너무 쉬우니, 참 그림 속속히를 안주에서 다음 날도 다시 만나세. (석회학자)



"너희들은 선생님을 아버지로 삼고 공부를 잘 해야 한다" 이런 글도 "아버지 나 잊 사 쉰..." (전주 사립부속 국민학교 김 봉중)

(크로스워드 풀기 49 호 대답)

상	말	선	대	원	군
할		교	실	자	
	의	사	록	탄	
과	식	남	로		민
수		비	너	광	주
	과		평		주
교	리		등	산	의

○아미
형 "저는 어디서 오는지 아니?"
중생 "의문하여 오지 뭐" 일 "아미"

중생 "그기야 미를 받은 것 하나까" (전주 사립부속 국민학교 김 봉중)

○아버지
선생님이 세로 일리한 1학년 생도를 보고,

『소학정』 구상부



▲『소학정』을 읽기 주시는 여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학정』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학정』에 몇 줄 차나 다르 같은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 선생님을 안녕히 인사드립니다. (사을 일전로 학 중절)

△소학생들의 작문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잘 된 것은 언젠가는 『소학정』에 실리 드립니다. (기사)

▲기차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런데 『아열 아달이의 노래』는 어느 선생님이 지으셨습니까? 그럴 안녕히. (사을 일전로 고 기차)
▲여러 분도 잘 아시는 우리 『소학정』의 주지(主知) 되시는 윤경환(尹景煥) 선생님이 지으신 것입니까. (기사)

▲수리들은 선지서 『소학정』 장자를 숙익하게 주며 주시는 여러 선생님을 기쁘히 주십시오. 저는 선생님을 따르므로 좋은 공부로써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학정을 졸업 하였고요과 이제 는 소학정을 아십니까하는 공적 『소학정』라는 걸이서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소학정』을 배우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지 소학정』이 잘 나지 해 나오게 될 우리 제회로써 되어 가는 것을 여러 선생님들 감사 드림이 여간 고됩니다. (사을 일전로 열재공 김 영선)

▲기차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라이에서 『소학정』라고 되었는데 소학이라는 『소학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어느 것이 옳습니까? (사을 일전로 김 중절)

△『소학정』도 쓰는 것이 옳습니다. (기사)

▲선생님을 안녕하십니까? 저는 9 원주의 상류로써 전학하게 되는데 『소학정』의 마을에도 작품을 보려고 좋은가를 선생님을 찾겠습니다. (중재문 현철중 김 중수)

▲『소학정』을 편집하시는 여러 선생님을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학정』에는 지리있고 숙익한 것이 많아서 잘 같은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지리 양면의도 많이 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을 일전로 한 광익)

▲선생님 여러 선생님을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이 배우는 『소학정』은 앞으로 일장 절한데 같은 필요가 되고 모습이 됩니다. 편집실 여러 선생님을 안녕하십니까? 다음 책을 정을 묻기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소학정』의 전기(前記) 이야기, 실재(實態) 화해(化解)에 관한 이야기 등을 많이 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것을 물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빨리 『소학정』을 더욱 좋게하여 주십시오. (개정 현철로 황 중운)
△일일이 재판을 못하여 미안합니다. 널리 양해하십시오. (기사)

▲여러 분들은 주님과 가까이 된 장자에 의 관공경을 지어냈을 줄 알다. 심심한 가을과 함께 외 땅의 새 작품을 맞이할 준비를 새로운 가을과 새로운 재회로써 이 좋은 계절 놓치지 말고 힘써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학생들의 생각이 일의 시대로써 잘 될 줄이겠다는 그러한 열의로써서 뜻할 말을 듣지 않으려 힘써 노력하십시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만큼의 이 만큼 과학이 발달하면 『수리 과학 발달의 열 열서』도 많이 보면, 과학이 발달하고 진리 진수이라는 것을 더욱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과학은 이치를 따지는 학문이므로 어렵하고, 혹은 불확나 불확보다 지리가 없다고 그대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저술하는 지리도 없고 이해를 모르나 주지라면 일부러 지리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이런데는 『가을의 과학』 특별으로 하였고요, 저류부의 열려져 하나로 바늘지 않고 편히 쉬오시기 바랍니다.

(김 중경)

1947年9月1日發行 •
 소학정 • 값 40 원
 9월호 • 제 59 호
 編輯者 尹石重
 印刷者 乙酉
 朝鮮兒童文化協會發行
 서울 延禧 2街 永興 2樓
 電話 (02) 3870 號 • 315 號
 總發賣 乙酉文化社
 發行 永興 2街 41 號
 小賣店 ★ 文京閣 ★ 錦路 2 街



배의 내력

①은 나무 모퉁이 걸여앉아
 나뭇가지로 저으면 앞으로 간
 다. ②가 이를 이뻐이 갈 수도 되
 는, 필요로 쓰여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개를 한데 묶었으



며, ③은 ②에서 조금 발달한
 것. ④처럼 발달된 1800 여년 전
 포오아의 배. ⑤는 300 여년 전

에 전경이 쓰던 배. ⑥ 이 유럽
 장군이 발명한 것으로, 임진왜란
 때 피지를 불피워서 세계에 유명
 한 "거북선". ⑦180년 전의 영
 국 기선이고, ⑧은 미국 사람 윌
 존이 발명한 기선. ⑨는 스페인
 본슨이 발명한 기선이다.

10 월 16 일 ⇨ 10 월 29 일

★ 우리 과학 전람회 ★

★여러 분의 좋은 작품을 기다린다★

과학! 우리는 과학을 배우고, 과학을 알고, 과학을 세워야 한다. 과학을 알고 과학이 발달된 나라만이 오직 잘 살 수 있고 남과 이득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 과학 동우회에서는 해마다 과학 전람회를 열기도 하고, 읍부회는 우리 조선 아동 문화 협회와 공동 주최로 더 많은 규모 큰 전람회를 열기도 하였는데, 초·중·고 학생 여러 분들은 아래에 지된 규정을 잘 지켜 많은 작품을 보내 주시기 바란다.

작품 모집 규정

1. 출품할 사람=국민학교, 중등학교에 다니는 정도는 남자고 여자도 상관 없이 낼 수 있음.
2. 출품할 종류=과학에 관한 연구 보고서, 또는 작품.
(ㄱ) 동물, 식물, 광물, 물의 표본.
(ㄴ) 관찰, 연구의 보고서.
(ㄷ) 설계 창안품(設計 創案品), 모형, 발명품.
(ㄹ) 사진, 과학 그림
(ㄹ) 항로 보고, 조사서(船士 報告 調査書).
3. 출품 통지 기일=을 9 월 그믐까지
자 학년 별로 출품할 것의 이름과 가짓수를 자 학교 교장이 통지하실 것.
4. 출품할 날짜=을 10 월 1 일부터 5 일까지.
5. 출품할 곳=서울 종로 화신 백화점.
6. 전람회 여는 동안=을 10 월 16 일

부터 29 일까지.

7. 여는 곳=서울 종로 화신 백화점.
8. 작품 값을 본=과학계의 권위자 여러 선생님을.
9. 상품=1 등 2 사람, 2 등 4 사람, 3 등 10 사람, 그 밖에 관원 사람. 상장과 상품을 줌.
출품한 사람은 하나도 빼 놓지 않고 "출품 기념장"을 받음.
그중 잘 된 작품을 출품한 학교에는 "문교부장상"이 있고, 이 밖에 "절기도 지사상"과 "서울시장상" "조선 아동 문화 협회 이사장상" 등이 있음. 출품을 많이 한 학교는 특별히 표창함.
그리고 특별 출품으로, 전문 대학생, 일반 연구가 교육가들의 작품과 연구 문헌도 환영함.
연락할 곳=출품 관계 서울 종로 화신 백화점 서무부.(그 밖의 것) 서울 경복궁 학교.

—주 회—

조선 과학 교육 동우회 ★ 조선 아동 문화 협회

—주 원—

문교부 • 경기도 학무국 • 서울시 학무국 • 서울시 교육회 • 경향 신문사